[UCI]I804:24011-200000236568

2008年 8月

敎育學碩士(漢文敎育)學位論文

# 眉巖 柳希春의 交遊關係 硏究

The study of Miam heechun Yoo's social-intercourse relationship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한 문 교 육 전 공

정 하 임

# 眉巖 柳希春의 交遊關係 硏究

The study of Miam heechun Yoo's social-intercourse relationship

2008年 8月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한 문 교 육 전 공

정 하 임

# 眉巖 柳希春의 交遊關係 硏究

指 導 敎 授　權　純　烈

이 論文을 敎育學碩士(漢文敎育)學位 請求論文으로 提出합니다.

2008年 8月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한 문 교 육 전 공

정　하　임

鄭夏任의 敎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합니다.

審 査 委 員 長 朝鮮大學校 敎 授 印

審 査 委 員 朝鮮大學校 敎 授 印

審 査 委 員 朝鮮大學校 敎 授 印

2008年 8月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 목 차

ABSTRACT ····· i

Ⅰ. 서론 ····· 1

1. 문제 제기 ····· 1

2. 연구 방법과 대상 ····· 4

Ⅱ. 생애와 일기 ····· 6

1. 생애 ····· 6

2. 『미암일기』 저술 ····· 13

Ⅲ. 교유관계 ····· 17

1. 師承關係 ····· 17

2. 호남士林과의 교분 ····· 31

3. 부인 송덕봉과의 詩交 ····· 45

Ⅳ. 결론 ····· 52

참 고 문 헌 ····· 56

<부록> ····· 60

# The study of Miam Heechun Yoo's social-intercourse relationship

Chung Ha-im
Adviser : Kwon Soon-yoel Litt.D.
Major : Sino-Korean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Miam Heechun Yoo (hereinafter called "He") was a literary man and bureaucrat in the Joseon Dynasty era. He was in government service after passing the state examination when he was 26 years old, but he went into exile at 35, cause of falsely implicated in YangJaeYukByukSeo. while exiling period he read widely, wrote plenty of books and mand an effort to young men training. When Sunjo was crowned in 1567, he was pardoned and consecutively filled various government posts. At that time he was showed honorable figure of bureaucrat and he basked in royal favor as a teacher of load. About the time when he was pardoned and appointed to bureaucrat, he wrote Miam's Diary from October 1567 to May 1577. Looking around the contents of a Miam's Diary, we can imagine he had a lager variety of relationship with intellects of the age.

Looking around the contents of Heechun Yoo's Social-intercourse, first

Master and disciple relationship of his connection of Learning was descended from KiMyoSaRim such as Ankuk Kim, Sandoo Choi etc. He was learned SoHak from Ankuk kim, As a disciple of Jongjik kim, Ankuk kim established SoHak becoming a practical basic Learning and Heechun Yoo, disciple of Ankuk Kim also was learned SoHak's importance and laid emphasis on SoHak as much as put the first Number among Leanings. He asked Sandoo Choi for help when he was at 20, who was in close reletionship and connected with his family and academic back-ground. Sandoo choi also inherited Joseon confucianism which was handed down from Koingpil Kim's Learning and Thoughts and he was called as an eminent scholar of Honam region later on.

Second, He widely exchanged social-intercourse with scholars of Hanam region. While exiling period he eased his loneliness with Inhoo Kim through 15poetry and he was devoted to compose a poem also built a relationship with as an academic friend in order to relieve his adverse circumstances and promote a friendship sincerely. He went back to Dam-Yang and asked Eungjung Yang for help to deal with the king's orders that were conducted researches in "The scriptures; the sacred book" and organized "THE FOUR BOOKS OF ANCIENT CHINA" ; The Analects of Confucius, The works of Mencius, The Doctrine of the Mean and The Great Learning. He finished those works in good order so that they accumulated profound leaning mutually and distinguished themselves in progress of Confucianism. When he went into exile cause of falsely implicated in YangJaeYukByuSeo, Sechan Na deprived of his government service through vindicating Heechun Yoo's

innocence. The courageous figure of like this so that they were became a close friend. We can see their friendship despite over 15 years of gap through expressing his deep sorrow at Sechan Na's death by writing poetry.

Third Although There's a limitation of women's literary activity in those days, Dukbong Song who was Heechun Yoo's wife, stayed creative with that as a woman poet. when Heechun Yoo composed a poem, he reflected his wife's view as much as possible also respecting that and took a receptive attitude to her view. With this they were sustained impartially their conjugal relations by poetry friend and through poetry they enhanced their status.

Let's look around his Social-intercourse relationship. He was lived for ages in Honam region so that he formed close relation with local celebrities. Especially Celebrities who was come from Hanam region, took an active part in 16th century, he associated with Honam celebrities with trust and integrity in a government post. Moreover we were confirming that he was extending his Knowledge and judgment besides showed us as an intellectual, exemplary scholar, literary man and bureaucrat. Lastly we're looking forward to renew his Social-intercourse relationship and stand his status.

# Ⅰ. 서론

## *1.* 문제 제기

眉巖 柳希春(1513～1577)은 16세기 조선의 대표적인 학자이자 문인이며 관인이었다. 유희춘은 중종 8년(1513) 12월 4일 전라남도 海南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려서부터 영민했고 26세(1538)에 과거에 급제한 뒤 弘文館 修撰 茂長縣監을 지냈다. 35세(1547)에 良才驛壁書事件[1)]에 연루되어 제주도로 유배되었으나 고향인 海南과 가깝다는 이유로 함경도 鍾城으로 이배되었다. 유희춘은 20여 년간의 유배생활 동안 다독하였으며 續蒙求 , 六書附錄 등을 지었다. 또한 성리학과 경학 연구에 몰두하여 그 깊이를 더 하였으며 후진양성에도 힘을 쏟았다.

1567년 선조가 즉위하자 유희춘을 사면하고 『弘文』館校理로 임『명』하여 임금께 글을 가르치는 명을 받았다. 선조 초반에는 유희춘이 조정의 요직을 두루 역임하며 모범적인 관인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최고 경연관으로 선조의 신임과 총애

1) 양재역벽서사건은 을사사화의 2년 뒤에 일어난 것으로 윤원형 세력이 윤임파의 잔당과 사림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고의적으로 정치 쟁점화했던 정적 숙청사건이다. 정미년(1547) 9월 18일에 副提學 정언각이 선전관 李櫓와 함께 양재역 壁書를 아뢰었다. 그 글은 붉은 글씨로, “女主가 위에서 정권을 잡고 간신 이기 등이 아래에서 권세를 농간하니, 나라가 장차 망할 것은 서서 기다릴 수 있을 정도이니, 어찌 한심하지 않으리오.” 하였는데, 이기・정순붕・윤원형・임백령 등이 드디어 그 글을 봉해서 올렸다. 李岏・宋仁壽・李若氷에게는 사약을 내리고, 李彦迪・鄭滋는 먼 변방에 안치되고, 柳希春・盧守愼・丁熿・金鸞祥은 絶島에 안치되고, 權應挺・權應昌・鄭惟沈・李天啓・權勿・李湛・林亨秀・韓澍・安景祐 등은 먼 지방에 付處되고, 宋希奎・白仁傑・李彦沈・閔起文・黃博・李震・李世男・金振宗・尹剛元・趙璞・安世亨・尹忠元・安 등은 付處되었다.( 대동야승 권12, 乙巳傳聞錄 , <鄭彦慤上變> 참조)



豁 『 』 「 」

를 받았다. 유희춘은 선조 초반의 대표적인 호남사림으로 폭넓은 교유관계를 형성하며 호남사림의 맥을 잇고 또한 16세기 호남문단을 흥기시키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조선의 성리학을 발전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각 방면에서 미암 유희춘에 대한 연구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2]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종성의 「미암 유희춘의 한시 연구」에서는 유희춘의 생애와 한시를 살펴보았는데 특히 「미암일기」와 「미암선생집」에 수록된 작품 가운데 교유와 수창의 대상이 밝혀진 작품들을 중심으로 호남의 문인과 호남 외의 인물들로 나누어 교유의 모습을 고찰해 하였고 『송덕봉과의 부부』수창시를 논하였다. 송재용은 「眉巖日記 研究」에서 「眉巖日記」의 내용을 정사, 학문, 문학, 민속, 과학, 신변잡기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교유관계의 내용도 부분적으로 소개하였다. 정재훈의 「미암 유희춘의 생애와 학문」에서는 『호남사림의 중요한 인맥을 구성하는 인물로 유희춘의 생애를 살펴보았고 학문에서는 尊朱子적인 모습과 이단사상이라 불리우던 陽明學과 存心에만 치우치는 心學을 배척하는 경향을 고찰하였다. 황수정의 「미암 유희춘 문학 연구」에서는 유희춘의 문학 인식과 한시 세계의 경

2) 金鐘城, 「眉巖 柳希春의 漢詩 研究」,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박미해, 「16세기 夫權과 婦權의 존재 양식: 眉巖日記에 나타난 유희춘과 송덕봉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18집, 한국여성학회, 2003.
宋宰鏞, 「眉巖日記 研究」,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_____, 「眉巖日記에 書誌와 史料的 價値」, 퇴계학연구 12, 단국대학교 퇴계학연구소, 1998.
_____, 「眉巖日記에 나타난 人間 柳希春」, 『퇴계학연구 16』, 단국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002.
_____, 「眉巖 柳希春의 生涯와 學問」, 퇴계학연구 10, 단국대학교 퇴계학연구소, 1996.
_____, 「眉巖 柳希春의 詩世界: 漢詩와 時調를 중심으로」, 『동양학』 30,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0.
_____, 眉巖日記 研究, 제이앤씨, 2008.
鄭在薰, 「眉巖 柳希春의 生涯와 學問」, 『남명학연구 3』,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1993.
황수정, 「眉巖 柳希春 文學 研究」, 韓國漢詩研究 14, 韓國漢詩學會, 2006.

향을 파악하였다. 문학 인식은 문학에 있어 효용성을 강조하였는데 교화론적으로 문학을 인식하였고, 한시는 내용을 중심으로 君恩, 愛民의 의지, 가족에 대한 배려, 산수를 통한 성찰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그 외의 논문에서는 주로 유희춘의 생애와 학문, 그리고 유희춘의 한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유희춘의 교유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것으로 보인다.

許筠(1569～1618)은 惺翁識小錄 에 朴祥, 朴淳, 崔山斗, 柳成春, 柳希春, 梁彭孫, 梁應鼎, 羅世纘, 林亨秀, 金麟厚, 林億齡, 宋純, 李恒, 奇大升, 高敬命 등이 학문과 문장에 두드러진 「인재」라고 하였다.[3] 이는 당시 호남의 실정을 잘 알았던 허균의 평가로써 16세기 호남문단의 풍성한 성과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이로써 유희춘은 당대의 저명한 문인, 학자, 관인과의 폭넓은 교유관계를 형성하며 학문과 식견을 넓혔음을 짐작할 수는 있지만, 그에 관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유희춘의 생애와 『미암일기』 저술 배경과 유희춘의 교유관계를 통해 16세기 호남문단의 풍성한 교유관계의 모습들을 일기, 시, 서찰 등을 통하여 고찰하고 교유의 특색과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3) 在靖陵朝 湖南人才之顯于時者甚多 如朴訥齋昆季 崔舍人山斗 眉庵昆季 梁校理彭孫 羅提學世纘 林牧使亨秀 金河西 林石川 宋三宰純 吳贊成謙 最者 其後朴思菴 李一齋 梁松川 奇高峯 霽峯 或以學問 或以文章顯於世（許筠, 惺所覆瓿藁 23, 惺翁識小錄 ）



『 』 「 」

## 2. 연구 방법과 대상

본고에서는 미암 유희춘과 16세기 호남문단의 교유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유희춘의 교유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기적 삶을 통해서 그의 의식세계를 고찰하여야 한다. 유희춘을 대표하는 것은 그가 남긴 11년간의 기록인 『미암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인간의 삶에 모습들을 일정기간 기록한 일기는 유희춘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따라서 먼저 유희춘의 생애와 『미암일기』 저술 배경을 살펴보겠다. 그가 남긴 『미암일기』와 『미암집』 등을 살펴보면 당대의 여러 문인, 학자, 관인들과 유대를 형성하며 폭넓은 교유관계를 맺고 활발하게 활동한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사승관계, 『호남사림』과의 교분, 부인 송덕봉과의 시교 등을 통하여 유희춘의 교유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Ⅱ. 전기적 배경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찰하겠다.

1. 유희춘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그의 가문과 가족구성원들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의 가계와 생애를 살펴보겠다.

2. 조선조 개인일기 중에서 가장 방대하며 사료로서의 가치가 있는 『미암일기』를 저술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겠다.

Ⅲ. 교유관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찰하겠다.

1. 사승관계에는 中宗朝의 사림파의 대표적인 인물인 金安國(1478～1543)과 『당대의 湖南三傑』로 불리는 崔山斗(1483～1535)의 학맥을 파악하고 두 사람이 유희춘에게 전해준 학문과 사상을 살펴보며 유희춘의 문인들에 대하여 고찰하겠다.

2. 호남사림과의 교분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찰하겠다.

첫째, 河西 金麟厚(1510～1560)와의 信義를 강조한 知音之情의 교유의 모습을

살펴보겠다.

둘째, 松川 梁應鼎(1519～1579)은 유희춘이 四書의 吐와 註釋을 詳定하라는 선조의 명을 받았는데 이들의 從遊之情의 교유 모습을 살펴보겠다.

셋째, 松齋 羅世纘(1498～1551)은 유희춘이 을사사화에 화를 입었을 때 적극적으로 구원하려 했던 일로 친한 사이가 되었다. 이들 사이에서 忘年之情의 교유의 모습을 살펴보겠다.

3. 부인 송덕봉(1521～1578)과의 詩交에서는 당시 여성들의 문학 활동에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희춘과 부인 송덕봉은 시로써 일상생활에서 있었던 일을 수창하며 교감한 문학적 교유의 모습을 파악하고자 한다.

Ⅳ. 결론으로 이제까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담양문화원의 朝鮮史編修會編 朝鮮史料叢刊 眉巖日記草 와 韓國文集叢刊의 眉巖集 을 주자료를 삼았고, 담양군에서 발행한 (다시 읽는) 미암일기 를 보조 자료로 삼았다. 『 』

『 』 『

』

# Ⅱ. 생애와 일기

## *1.* 생애

柳希春(1513～1577)의 字는 仁仲, 號는 眉巖[4]이며 本貫은 善山이다. 中宗 8년(1513) 12월 4일 城隱 柳桂隣의 둘째 아들로 海南에서 태어났다. 그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그의 가문과 家率들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유희춘의 가계를 살펴보면 五代祖까지는 高官을 지냈으나 高祖 이하 曾祖·祖父·父親에 이르기까지는 벼슬하지 못하였다.[5] 高祖 柳文浩는 甘浦萬戶를 지냈고 曾祖 柳陽秀(1405～1482)와 祖父 柳公濬(1448～1500)은 벼슬하지 못하였으나 유희춘이 전라감사에 임명되자 증조 유양수는 通訓大夫通禮院左通禮, 조부 유공준은 承政院左承旨兼經筵參贊官에 追贈되었다.[6]

父親 城隱 柳桂隣(1478～1528)은 吏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에 追贈되었다. 그는 錦南 崔溥(1454～1504)의 딸과 혼인하면서 해남으로 이주하였다. 최보는 나주 출신으로 金宏弼과 金宗直의 문인으로 戊午士禍와 甲子士禍에 함께 화를 입은 사이였다. 한때 해남에 기거하면서 尹孝貞·林遇利·유계린 등에게 학문은 가르쳤으며 서거정 등과 함께 『東國通鑑』 편찬에 참여하였고 풍랑을 만나 명나라까지 갔다가 돌아와서 『漂海錄』을 저술하였다. 戊午士禍 때 함경도 단천에 유배되었다가 甲子士禍 때 현지에서 斬刑을 당하였다.[7]

4) 해남 금강산 남쪽 기슭에 살았을 때에『집 뒤쪽 바위』가 눈썹처럼 생겨서 붙여진 호이다.

5) 有人曰 文起四代衰 蓋希春玄祖書雲正諱澥以上 皆高官大爵 自高祖甘浦萬戶諱文浩以下 四世不顯 至于先考 敎誨二子 兄及希春『相繼文科』希春又位至宰相 光生九族 實一家之中興也. (柳希春, 眉巖日記草 三, 癸酉(1573年) 1月 1日)

6) 早朝 吏曹書吏柳熙祥 持昨日政下批追贈三世官誥來 希春具冠帶出迎 受而向闕伏地 入而展讀 則先考贈吏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 祖贈承政院左承旨兼經筵參贊官 曾祖贈通訓大夫通禮院左通禮. (柳希春, 眉巖日記草 三, 辛未(1571年) 3月 5日)



『 』

『 』

유계린의 저술이나 사상적인 특징은 확인할 자료가 많지 않으나, 최보의 사위가 됨으로 장인 최보와 김굉필의 학문과 사상적인 영향을 받고 성리학에 상당한 조예를 갖추었을 것이다.[8] 유계린의 학문과 사상은 아들인 유성춘과 유희춘으로 이어졌다. 그는 경전에 박식하였고 30세 이후에는 두문불출하고 향촌의 자제를 가르치는 데에 힘을 쏟았다. 眉巖集 에 수록된 庭訓 은 유희춘이 부친의 언행과 가르침을 정리한 것이다.

兄 懶齋 柳成春(1495～1522)은 崔山斗, 尹衢와 함께 당대의 湖南三傑로 일컬어진 인물이다. 19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工曹・禮曹・吏曹佐郎을 지냈다.[9] 그는 도덕과 문장이 높았으며, 특히 賦에 뛰어남을 알 수 있다.[10] 이처럼 형도 뛰어난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유성춘 또한 일기를 쓴 것으로 보이나 전해지지 않고 있다. 己卯士禍에 연루되어 金陵으로 유배되고 中宗 16년(1521)에 해배되었지만 그 다음해 中宗 17년(1522)에 2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다.

유희춘의 妻家를 살펴보면 丈人 宋駿은 洪州 宋氏로 중종 2년(1507) 生員試에 합격하고 司憲府監察과 丹成縣監 등을 역임하였다. 송준은 연산군 때 大司諫・右承旨・全羅監司・大司憲・禮曹判書 등을 역임하고 咸安 李氏의 딸과 혼인하여 3남 2녀를 두었는데 유희춘의 부인 송덕봉은 그의 2녀로 태어났다. 홍주 송씨[11]

7) 錦南有盛名於宣陵 燕山之間 文章甚高 死於戊午之禍.(許筠, 惺所覆瓿藁 23, 惺翁識小錄 )
8) 이해준, 己卯士禍와 16세기 전반의 湖南學派 , 傳統과 現實 2호, 高峰學術院, 1992, p.152.
9) 取郎廳先生案觀之 則先伯氏於己卯十二月 自工曹佐郎 爲禮曹佐郎 庚辰五月 遷吏曹佐郎矣.(柳希春, 眉巖日記草 三, 癸酉(1573年) 4月 8日)
10) 吾鄕文章 相繼迭出 若尹橘亭之文 吾伯氏之賦 與此石川林公之詩 皆大鳴於世.(柳希春, 眉巖日記草 卷4, 癸酉(1573年) 7月 11日)
11) 홍주 송씨 가문 중 宋齊民은 유희춘의 처종질로서 권필의 장인이기도 하다. 송제민은 조선 중기 학자로 자는 士役, 호는 海狂으로 임진왜란 뒤, 난중에 일어난 모든 일과 그 득실을 논술한 '臥薪記事'를 저술하여 관찰사의 미움을 사서 은거하며 후진양성에 매진하였다. 그는 '經國濟民'을 이루려고 했으나, 뜻을 펴지 못함을 탄식하고 자신의 이름글자 중에 '濟'를 '齊'로 고쳤다. 그의 사당은 광주 금곡동 운암서원이다.

는 호남지역에 근거를 둔 사림파 가문이었다고 하겠고 한시에 능하였던 송덕봉과 石洲 權韠의 부인을 배출한 집안이었다.

유희춘은 9세에 부친인 유계린에게 통감 을 수학하였다.[12] 중종 17년(1522)인 10세 때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유배생활에서 해배된 1년 후 형 유성춘은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중종 23년(1528)인 16세에는 부친상을 당하는데 형과 부친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았다. 己卯士類인 新齋 崔山斗(1483~1535)에게 중종 27년(1532)인 20세 때 가르침을 받았고, 후에 전라도 관찰사로 온 慕齋 金安國(1478~1543)을 스승으로 모셨는데 김안국을 가장 존경하고 흠모하였다.

당시 己卯士類의 학풍은 일관된 훈구파의 詞章的 경향을 반대하면서 화려한 수사보다는 내용의 진실성을 추구하였고[13] 김안국은 15세기 말엽 조광조와 함께 대표적인 기묘사류의 인물이다. 유희춘은 호남사림의 전형적인 인물로 기묘사림의 영향을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미암일기 의 내용을 살펴보자.

> "엎드려 보건데 製述官을 간택하는 데에 소신도 제술관의 선출에 들어 있는데 이는 오로지 詩를 좀 지을 줄 안다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신은 본시 시에 소질이 없어 젊어서부터 늙도록 한 개의 좋은 구도 짓지 못하여 아예 시를 배우는 일을 단념하였습니다. 그래서 을사년 중국 사신이 올 때에는 제술관의 수에 들지를 못했는데, 이제 담당관이 잘못 취하여 吹竽의 대열에 외람되이 끼이게 되었으니 극히 온당치 못합니다. 청컨대 신의 이름을 삭제하시어 스스로 부족함을 알게 하소서." 라고 하였더니 임금께서 답하시기를 "담당관이 어찌 공연히 헤아려서 뽑았겠는가? 사양하지 말라."라고 하였

12) 頃閱先君子日記 辛巳夏云 喜孫者始讀通鑑 一日之受 僅只二張 然時以其意 論古今人物 出人意表 今年又蒙上札 以爲卿前在經帷 論說古今 出人意表 不勝感激.(柳希春, 眉巖日記草 卷3, 辛未(1571年) 5月 22日)

13) 禹應順, 16세기 畿湖士林派의 형성과 그 문학적 지향 , 韓國漢文學硏究 31집, 韓國漢文學會, 2003, p.113.

다.[14]

金湜, 張珹의 皇華集에 詩韻에 次韻한 일을 官이 나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나는 평소 詩作에 능하지 않으니 어떻게 변별할 수 있겠습니까?[15]

조광조를 중심으로 한 기묘사림은 사장을 비롯한 문장의 가치를 중요시 하지 않는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16] 經學을 중요시하고 사장을 비롯한 文章의 가치를 천하게 여겼기 때문에 유희춘도 그 영향으로 문장의 저술보다는 경학에 온힘을 쏟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의 일기 내용으로 보아도 사장보다는 經學에 힘썼음을 알 수 있다.

중종 31년(1536)에는 司憲府監察과 丹城縣監을 역임한 宋駿의 딸 宋德峯과 혼인한다. 송덕봉은 經書와 史記를 두루 섭렵하고 詩와 文에 뛰어났다. 중종 32년(1537) 25세에는 生員試에 합격하고 다음해 중종 33년(1538)에는 文科 別試에 及第하였다. 그해 10월에는 成均館 學諭가 되었다. 유희춘은 중종 34년(1539) 實錄廳兼春秋館記事官에 임명되고 중종 36년(1541) 6월 藝文館 檢閱을 거쳐 다음해 중종 37년(1542) 1월 世子侍講院 設書가 되어 東宮을 輔導했으며, 8월에는 司書에 오르고 다음해 중종 38년(1543) 2월에 弘文館 修撰과 사서를 겸직하였으나 6월에는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하여 휴가를 청했는데, 특별히 茂長縣監에 임명되어 무장현이 다스리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교화를 우선하고 각종 폐단을 없애려고 노력하였다.

14) 伏覩製述官揀擇內 小臣亦參製述官之選 專爲能詩也 而臣本無作詩之性 自少至老 不能成一佳句 因遂絶意不學詩 乙巳年天使時 亦不入製述官之數 今有司誤取 至於濫厠吹竽之列 極爲未安 請命減去臣名 以許自知闕短 上答曰 有司豈偶 然計而選之乎 勿辭.(柳希春, 眉巖日記草 一, 戊辰(1568年) 4月 12日)

15) 金湜張珹皇華集次韻事 官屬于余 余素不能詩 何能辨乎.(柳希春, 眉巖日記草 一, 戊辰(1568年) 6月 11日)

16) 禹應順, 앞의 논문, pp.122~123.

仁宗 1년(1545) 5월에 이르러 大司憲 宋麟壽가 경연을 중요시 여겨 유희춘을 추천하여 다시 조정에 들어가 修撰이 되었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인종은 재위한지 8개월 만에 승하하였고, 12세의 명종이 즉위하자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었다. 유희춘은 당시에 司諫院 正言이였는데 時務十策을 동료들과 작성하여 올리고 8월에 사간이 되었다. 당시 尹元衡은 그의 일당인 李芑, 鄭順朋, 林百齡, 許磁, 崔輔漢 등과 계책을 꾀하였고 그의 첩 蘭貞은 문정왕후와 명종을 선동하여 尹任과 그의 일당 柳灌, 柳仁淑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문정왕후로 하여금 密旨를 내려 大司憲 閔齊仁과 大司諫 金光準에게 이를 發論하려 하였다. 이에 민제인과 김광준 등은 中學에 회동하여 이를 의논하였지만, 유희춘을 비롯한 宋希奎, 朴光祐, 鄭希登, 李彦忱, 金儲, 閔起文, 白仁傑, 金鸞祥 등 모두가 그들의 말에 따르지 않고 오히려 밀지를 부당하다고 규탄하여 결국은 이를 論啓하지 않았다. 이 일로 인하여 윤원형은 크게 노하여 이기·정순붕·임백령·허자 등을 대궐로 들여보내 윤임 등 2인의 죄를 아뢰게 하였으며 이들에게 반역의 죄를 씌워 귀양을 보낸 후 모두 죽였다. 이로 인해 송희규 이하 대간은 모두 파직되었는데 이것이 乙巳士禍이다. 이때 유희춘 역시 파직되어 鄕里로 退居했는데 명종 2년(1547) 9월 良才驛壁書事件이 일어나 을사년에 파직된 사람들에게 죄가 덧씌워져 제주로 유배되었으나 고향과 가깝다는 이유로 함경도 鍾城으로 유배지가 옮겨졌으며 유배지 종성에서 유배생활 19년 동안 경서를 口誦하고 후진들의 교육과 저술에 매진하였다. 명종 13년(1558) 2월에는 모친상을 당하는데 유배자의 몸으로 어머니의 장례를 치루지 못했지만, 부인 송덕봉이 정성껏 삼년상을 치루었다.

명종 20년(1565)에 이르러 문정왕후가 죽자 李鐸, 朴淳이 주축이 되어 윤원형을 몰아내고 을사사화 때 화를 입은 관료들의 논의가 일어나 유희춘은 恩津으로 이배되었다. 이어서 명종이 승하하고 선조가 즉위하자 또다시 을사사화의

논의가 일어나 유희춘은 노수신, 김난상과 같이 방면되고 成均館 直講에 재출사하여 다시 弘文館 校理로 옮겨졌으며, 司憲府 掌令, 司諫院 司諫, 議政府 舍人 등을 역임하고 선조 2년(1569)에 成均館 大司成에 올라 학풍을 바로잡는데 힘썼다. 다음해에 弘文館 副提學에 임명되었으며 병으로 잠시 담양에 내려가기도 하였다. 선조 4년(1571)에 전라도 관찰사로 나갔다가 9개월 만에 司憲府 大司憲으로 돌아온 뒤 弘文館 副題學, 藝文館 提學, 司諫院 大司諫, 禮曹・吏曹參判 등의 요직을 역임하였다. 선조 9년(1576)에 건강을 이유로 사직하고 향리로 돌아갔으나, 선조 10년(1477)에 다시 弘文館 副提學에 임명되고 품계가 정2품 資憲大夫에 올랐다. 그러나 그해 선조에게 사직을 청하기 위해 서울에 올라왔다가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4년 뒤에는 左贊成으로 추증되었고 仁祖때 諡號를 文節이라 추증 받았다. 담양의 眉巖祠堂[17]과 義巖書院을 비롯하여 무장의 忠賢祠와 종성의 鍾山書院과 해남에 海村祠, 광산의 武陽書院 등에 배향되었다.[18] 유희춘은 세상을 떠나기까지 조정에 머물며 경연관으로 이름을 날리며 弘文館 副題學, 成均館 大司成, 司憲府 大司憲, 司諫院 大司諫, 承政院 承旨, 六曹參判 등 요직을 두루 역임했는데 특히 弘文館 長官으로서의 재임기간이 가장 길어 왕의 학문을 도와 바르게 이끌고 成均館 同知事를 겸하여 후진들 양성에 매진한 것이다.

그의 저술 및 편찬서는 『國朝儒先錄』, 『大全集覽』, 『語類注解』, 『續諱辨』, 『綱

17) 眉巖祠堂은 2001년 9월 27일 지방민속자료 제36호로 지정되었다. 이 사당은 정면 3칸, 측 1칸의 목조건물 맞배지붕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종가집의 동북 편에 위치하고 있다. 건축 연대를 알려주는 상량문이 없어 건축연대를 짐작할 수 없었지만 기와를 교체하면서 명문이 있는 암막새 기와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로써 1608년에』만들어진 기와임이 『확인되어 건축연대를』 알 수 있었다. 그런데 필자가 2008년 6월 27일 답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3년에 사당을 해체 복원하는 과정에서 상량문을 발견하여 1579년에 건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유희춘이 죽고 삼년상을 치룬 후에 만들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사당 안에는 1576년 임금께서 하사한 御衣와 유희춘과 송덕봉의 신주가 있다.

18) 고영진, 『호남사림의 학맥과 사상』, 혜안, 2007, p.201.

目考異 , 歷代要錄 , 續蒙求 , 川海錄 , 兩聖辨 , 玩心圖 , 藝園閑採 , 致
堂管見注解 , 獻芹錄 , 六書附錄 등이지만 대부분 없어지고 단지 국조유선
록 과 역대요록 및 수필일기의 일부가 전해지고 있다.

## 2. 『미암일기』 저술

일기는 인간의 삶의 모습들을 일정 기간 동안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문자가 만들어진 이후로 인간 생활과 함께 밀접하게 있어 왔다고 여겨진다. 또한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면서 일기는 사실적인 기록과 개인의 주관을 담은 것이다. 미암일기 는 조선 명종·선조 연간의 관료이자 학자였으며 문인의 삶을 살았던 미암 유희춘이 남긴 선조 즉위년(1567) 10월 1일부터 선조 10년(1577) 5월 13일 그가 죽기 이틀 전까지 거의 11년간 작성된 개인일기이다.[19]

송재용 논문에 의하면, 현존하는 유희춘의 自筆本 미암일기 는 본 10冊뿐이며 恩津配所에 있던 1567년 10월 1일부터 해배·복직되어 관직에 있던 1576년 7월 29일까지의 기록이라고 하였고 自筆本과 異本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20]

유희춘이 일기를 저술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유희춘의 부친 유계린, 형 유성춘이 일기를 작성하였음을 미암일기 에서 살펴볼 수 있다.

> 일전에 아버지의 일기를 살펴보니 신사년의 여름 記事에 하였기를, "희손이란 놈이 통감 을 읽기 시작했는데 하루 배운 것이 겨우 2장뿐 이지만 이따금 제 뜻으로 고금의

19) 유희춘, (다시 읽는) 미암일기 권5, 담양군, 2004, p.284.

20) 宋宰鏞은 현존하는 미암의 친필일기는 11冊이 아니라 10冊이라고 밝히고 있다. 宗家藏本 중 부록 1책(제11책, 주로 유희춘과 그의 부인 송덕봉의 詩·文임)은 그가 필체를 대조해 본 결과 필사자가 한 명이 아니라 두명일 가능성이 크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유희춘 생존시대의 기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그 實例 들어보면 <崇禎七年甲戌三月二十七日行迎謚禮>라는 제목의 글이 있는데 여기서 '崇禎 七年'은 仁祖 12(1634)년 이다. 그리고 <觀水說> 小註에 '先君在鍾城時癸亥甲子年間作'이라 明記되어 있다. 또 말미 <田家卽事> 앞장은 한 페이지 정도가 국문이다. 따라서 제11책(부록 1책)은 후인 (또는 후손) 두 명이 필사한 것으로 유희춘의 자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필 일기의 내·외 표지의 필체는 유희춘의 필체가 아니라 동일인의 필체로 후인(또는 후손)의 필체이다. 그리고 德峯文集幷眉巖集 (1718년 필사 추정)에는 부록의 누락된 제목이나 내용들을 수록하고 있다. 이로써 짐작컨대 덕봉문집병미암집 을 보고 부록을 만든 듯하다. 따라서 유희춘의 자필 일기는 10책이라는 견해이다.

인물을 논평하는데 남들이 생각지도 못한 소리를 하여 기쁘다."고 하였다.[21]

엎드려 돌아가신 아버지의 일기 여덟 권을 보았다. 비감을 금할 수 없다. 형님의 을해년 일기를 보니 역시 슬픈 생각이 든다.[22]

책을 옮기다 엎드려 돌아가신 아버지의 일기와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년시절 사실을 적은 글을 보았다. 비감했다. 두 어른의 총명하심은 모두 제일이었다.[23]

喜孫은 유희춘의 兒名[24]으로 자신이 어린 시절 『통감』을 배우기 시작하여 하루의 학습하는 분량은 비록 적었지만 특히 『통감』을 배울 때, 국가난망의 대목에 이르러서는 탄식을 하며 눈물을 흘리니 부친이 기특하게 여겼다.[25] 바로 이러한 역사에 대한 인식은 나중에 그가 『미암일기』를 통하여 역사를 기술하고 진술할 수 있었던 밑거름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유희춘은 부친이 돌아가신 후에 부친이 남긴 일기를 보게 되는데 부친에 대한 그리움으로 슬퍼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당시 유희춘의 나이가 10세로 자신과 함께 부친에게 수학했으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형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았으며 형의 일기를 보고는 무고한 유배생활로 젊은 나이에 뜻을 펴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형에 대한 안타까움을 엿볼 수 있다.

위의 기술한 일기 내용으로 보면 부친이 일기를 작성했다는 점은 짐작할 수

21) 頃閱先君子日記 辛巳年夏云 喜孫者始讀通鑑 一日之受 僅只二張 然時以其意 論古今人物 出人意表 …中略… 不勝感激.(柳希春, 眉巖日記草 卷3, 辛未(1571年) 5月 22日)

22) 伏覩先君日記八冊 不勝悲感 見伯氏乙亥日記 亦爲感愴.(柳希春, 眉巖日記草 卷1, 戊辰(1568年) 1月 7日)

23) 遷移中堂書冊一半于大房 因遷冊 伏覩先君子日記先夫人幼年事實 爲之悲感 蓋兩家尊聰明 俱第一.(柳希春, 眉巖日記草 卷5, 乙亥(1575年) 12月 11日)

24) 宋宰鏞, 眉巖 柳希春의 生涯와 學問, 퇴계학연구 10, 단국대부설퇴계학연구소, 1996, p.214.

25) 參判公親授以通鑑 公時以其意論往事 多出人意表 至於國家亂亡之故 輒掩卷太息 或繼之以流涕 參判公奇愛之.(眉巖先生集, 諡狀)

있지만 언제부터 일기를 작성했고 몇 권의 일기를 작성했는지는 남아있는 일기가 없어 알 수는 없다. 또한 외조부 최보가 漂海錄 을 작성했던 점도 눈여겨 볼 수 있다. 최보는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호가 錦南이다. 1487년 9월 推刷敬差官으로 임명되어 제주도에 갔다가 이듬해 1월 30일, 부친상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고향인 나주로 가기 위해 일행 42명과 함께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 14일 동안 표류한 끝에 중국에 도착한다. 항주, 북경 등을 거쳐 5개월여 만에 조선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최보가 한양에 당도한 직후 성종의 명에 의해 표류의 전말을 기록한 것이 바로 표해록 이다.[26] 표해록 은 5개월여의 경험이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체[27]로 기록되어 있어 여행의 전말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유희춘은 외조부를 위하여 선조 1년(1568)8월 漂海錄跋 을 써어 외조부의 표류사실과 표해록 印出과정을 밝히기도 하였다. 유희춘도 부친과 형 그리고 외조부 역시 일기를 작성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유희춘의 친가와 외가 모두 일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중국의 영향과 더불어 예로부터 선인들은 글로 남기려는 버릇이 있었다는 점에서 추측할 수 있다. 특히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실제적인 경험과 이념을 더 중요시하였으므로, 견문과 實事를 기술하고 사물의 이치를 따지며 인물의 생애를 서술하는 등의 일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다.[28] 이로써 유희춘도 일기에 큰 관심을 가지고 11년간 자신의 주변 일들을 세세하게 기록하며 개인적인 기록은 물론이고, 학문 및 신변잡사 등 다양한 관심의 폭을 드러내어 작성한 것이다. 이는 당시 생활풍습과 학문의 흐름, 그리고 개인적인 취미에 이르기까지 백과사전적인 기록의 진면목을 엿볼 수 있게 한다.

26) 金美善, 崔溥 漂海錄 의 기행문학적 연구 ,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16.
27) 일기는 일력의 순서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쓴다는 기본 조건에서 출발한다. 그 명칭을 보면 실로 다양하다. 예를 들면 日記, 錄, 記事, 記聞, 史草도 일기의 형식인데 원칙적으로 날짜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기록한 모든 기록은 명칭에 관계없이 일기이다.
28) 宋宰鏞, 眉巖日記 硏究 ,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p.13.

지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유희춘은 중종 8년(1513) 유계린의 둘째 아들로 해남에서 태어났다. 25세에 생원시에 합격하면서 출사하였으나 을사사화로 파직되고 명종 2년(1547)에 일어난 양재역벽서사건으로 연루되어 종성으로 유배를 가는데 19년간의 유배기간 동안 성리학과 경학 연구에 몰두하여 학문에 깊이를 더하였고 후진양성에 매진하였다. 선조가 즉위하자 방면되고 재출사하여 경연관으로 이름을 떨치고 조정의 요직을 두루 역임하는데 선조 10년(1477)에 노환으로 생을 마감하였다. 일기를 작성하게 된 배경을 『미암일기』를 통해 살펴보면 부친과 형, 외조부가 일기를 작성하였음을 확인하였다.

# Ⅲ. 교유관계

## 1. 師承關係

유희춘이 생존했던 16세기는 지방에 있던 신진사림파들이 중앙정계에 진출하여 세력을 확장하고 기득권을 지니고 있던 훈구척신파 세력과 대립하며 몇 차례의 사화를 입게 되는 정치적으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기였다.[29]

중종은 연산군의 廢政을 개혁하였고, 이 시기에 중종을 보좌한 趙光祖를 비롯한 金安國, 金正國, 崔山斗, 朴祥, 奇遵 등의 신진사림파들이 등장하였다. 그들은 사림파의 師宗으로 추앙받는 金宗直과 金宏弼의 학통을 계승한 자들로 경학에 큰 관심을 갖고 도학적 이념을 기초한 요순의 이상정치를 펴고자 힘썼다. 또한 도학적 지치주의를 목표로 하여 개혁정치를 추진해 나갔으며, 소학 과 향약을 장려하고 널리 보급하여 풍속을 바로잡고 교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훈구척신파와 마찰이 일어나면서 결국에 己卯士禍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조광조가 사사되었고 김안국, 김정국, 박상 등은 삭탈 또는 파직되고 최산두는 유배되었다.

여기서는 유희춘이 사승관계를 맺었던 인물 중에서 스승 金安國과 崔山斗, 그리고 그의 門人들 중에서는 許筠, 許筬, 李好閔, 崔尙重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유희춘의 학맥은 김안국과 최산두 등 기묘사림의 계통을 잇고 있다.[30] 유희

29) 戊午士禍(1498年), 甲子士禍(1504年), 己卯士禍(1519年), 乙巳士禍(1546年)가 그것이다.

30) 趙麒永의 河西詩學의 湖南詩壇 에 의하면 16세기 호남시단은 김굉필, 최보, 송흠, 박상의 네 계열로 구분하여 김굉필 계열에 최산두, 유계린, 윤신, 최충성, 맹권, 김인후, 유성춘, 유희춘 등. 최보 계열은 윤효정, 박우리, 유계린, 윤구, 윤항, 윤복, 이중호 등. 송흠 계열에는 양팽손, 나세찬, 송순, 안처성, 양응정, 등. 박상 계열에는 송순, 임억령, 정만종, 채중길, 박순 등이 있

춘은 모재 김안국 문하에서 小學 을 배웠는데 김안국은 유희춘의 인물됨을 보고서 스승으로서 학문을 전수하였다.

金安國(1478~1543)의 字는 國卿, 號는 慕齋로 15세기 말엽의 조광조와 함께 道學者인 대표적인 사림파의 인물이다. 김안국은 程朱의 學을 흠모하고 篤實力行하여 經史書를 널리 통달하였다. 문장 또한 대성하여 그가 지은 大遊賦 는 한때 인구에 膾炙되었다.[31] 당시 사림파의 세력은 훈구척신파와 대립이 되어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김안국은 이러한 사화가 일어난 혼란의 시대에 출생했고 결국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경기도 이천에서 8년, 여주에서는 11년의 유배생활을 하게 되었다. 중종 5년(1510)~8년(1513)까지 成均館 司成으로 재직하면서 성균관 유생들과 교유하며 성리학 연구에 전념하였으며 소학 과 사서오경 및 성리대전 을 교과목으로 정하고 학습함으로 성균관 내의 도학풍을 확대시켰고 중종 13년(1518)에는 도학정치의 일환으로 효제를 우선해서 소학 교육의 중요성을 주장하여 五倫行實 을 만들었고 중종 12년(1517)에는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행정시에는 반드시 교화를 우선으로 하고 소학을 통한 사회 교화에 힘썼다.[32] 중종 14년(1519) 그의 나이 42살에 全羅道 觀察使 兵馬水軍節度使를 겸임하여 떠날 때 중종실록 에 의하면 임금이 "전라도는 난치가 근래에 더욱 심하니 임무가 중해서 김안국이 조정에 있어야 하나 경상도에 있었을 때 마음을 다해 宣化治效가 크기에 그 이룬 공적을 잊지 않았고 또한 전라도에 교화를 일으키게 하고 싶었다."[33] 하면서 특별히 전라도 관찰사로 임명하였다. 이때에 유희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그해 11월에는 기

다.

31) 始慕程朱之學 篤信力行 博通書史 文章亦已大成 所著大遊賦 膾炙一時.(金安國, 慕齋全集 下, 行狀 )

32) 安 봄, 河西 金麟厚의 文學思想 硏究 ,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p.14.

33) 上曰 安國果合用京織 前按嶺南 已有治效 予不忘其底績 亦欲使興化於全羅.( 중종실록 , 중종 14年(1519) 5月 16日)

묘사화가 일어나 조광조가 賜死되고 전라도 관찰사로 재임하던 김안국도 연루되어 파직이 되었는데 김안국은 경기도 이천으로 낙향하여 중종 32년(1537)까지 머물면서 성리학에 대한 연구와 후진들 교육에 매진하였다.

김안국의 門人으로는 유희춘을 비롯하여 김인후, 송인수, 정지운 등이 있는데[34] 중종 말기부터 문과 급제를 통해서 꾸준히 출사해 명종과 선조 때에 조정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인물들로 김안국의 사상과 학풍이 이들에게 전해진 것이다. 김안국의 도학주의 정치 성향은 교화에 중점을 두어 여러 고을의 향교에서 교육에 『소학』을 권장하여 풍속과 백성을 교화하려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사림파는 자기형성을 위한 기본방법과 성격을 『소학』의 실천규범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 선비의 인격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규범은 학문적 연마에 앞서서 도덕적 실천으로 인식하였다. 여기서 사림파는 도덕적 실천의 방법으로 『小學』을 통한 五倫의 도덕규범과 마음씨(心術), 태도(威儀), 의복, 음식 등 일상생활 속에서의 행동규범을 실천하는 데에 힘을 썼고 조선의 조정은 세종 때부터 『소학』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16세기 조선 사림들에 있어서 학문과 수신의 가장 기본의 텍스트로 삼았다. 특히 사림파에서는 김종직이 『소학』 교육에 관심을 기울인 이후 김굉필은 자신을 '小學童子'라 일컬을 정도로 『소학』을 존중하였는데 김굉필의 문인들인 조광조와 김안국, 김정국 형제 등은 『소학』을 실천적 기본과목으로서 확립하였다고[35] 할 수 있기에 김안국의 제자인 유희춘에게도 『소학』이 중요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 이달 14일의 전교를 보니, …중략… 배움의 순서는 『소학』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 역대의 임금 때에도 『소학』을 시험보거나 혹은 경서를 시험보고 나서 입학을 허락

34) 所至學徒坌集 日與之講習 賢愚交得 士林風動 其知金河西麟厚 宋圭庵麟壽 柳眉岩希春 鄭秋巒之雲 諸公.(金安國, 慕齋全集 上, 序 )
35) 琴章泰, 朝鮮前期의 儒學思想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p.101.

했는데, 乙卯 이후로부터 폐해버리고 강론하지 않은지가 오래되었다. 입학할 때 소학을 강론하여 시험을 보이게 하면 幼學의 선비들이 스스로 나아갈 방향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일을 다짐하여 거행하도록 吏曹에 하명한다고 하였다.[36]

글을 읽어 도의를 연구하여 밝히는 데는 四書와 小學, 近思錄, 大學衍義, 通鑑綱目 의 八書 만한 책이 없습니다.[37]

유희춘은 학문의 순서 중 소학 을 첫 번째에 두었다. 이것은 소학 이 교화에 알맞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주자의 교육이론은 소학 의 단계에서는 습관에 의한 함양을 위주로 가르쳐야 하고 대학 의 과정에 들어가야 格物, 致知, 誠意, 正心, 修身, 齊家, 治國, 平天下를 이룰 수 있다고 여겼으며[38] 대학의 道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소학이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학문의 기초를 중시하였고 인간의 교화에 있어서 소학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주자신봉자였던 유희춘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김안국이 경상도 관찰사로 있을 적에 소학 을 권장하는 시를 여러 편 지어서 소학 을 통해 향촌을 교화하려고 하였다.

| | |
|---|---|
| 小學書眞萬世師 | 小學書는 진실로 만세의 스승이니 |
| 程朱一脈在於斯 | 程朱의 道脈이 이에 있도다. |
| 諸生勉盡修行力 | 諸生은 힘써 修行하여 |
| 共作醇儒輔聖時 | 다 함께 醇儒되어 聖時를 돕자. |

勸示尙州學徒 [39]

36) 見今月十四日傳 …中略… 爲學之序 莫先於小學 其在祖宗朝 或試小學 或試經書 乃許入學 自經乙卯之後 廢而不講久矣 入學時 必令講試小學 則幼學之士自知向方 以此等事 申飭擧行事 下吏曹.(柳希春, 眉巖日記草 卷1, 戊辰(1568年) 1月 22日)

37) 讀書講明道義 宜莫若四書小學近思錄大學衍義通鑑綱目八書.(柳希春, 眉巖日記草 卷2, 庚午(1570年) 7月 17日)

38) 講小學大學論語等章 希春曰 朱子曰 先讀大學 去讀他經 方見得此是格物致知事 此是誠意正心事 此是修身事 此是齊家治國平天下事.(柳希春, 眉巖日記草 卷1, 戊辰(1568年) 9月 14日)

소학 을 참으로 만세의 스승이라 한 것은 김안국이 소학 에 나타나 있는 修身的 修己의 躬行이 義理實踐이 도학의 기초임을 알았기 때문이다.[40] 『소학』을 통하여 정주의 道脈이 소학 에 있다고 보고 성리학인 心性과 誠敬의 논리적인 것을 탐구하여 백성들의 심성을 교화하고 성경을 뿌리 깊게 내리려 하는 김안국의 의도가 보인다. 또한 정주의 학문을 숭상하여 순유하기를 갈망하였고 성시를 돕고자 하는 의도를 형상화한 것이 시에 잘 나타나 있다.[41]

김안국은 사장에만 능통한 것이 아니라 經書와 史記도 섭렵하였다. 김안국은 사장을 배척하고 소학 과 程朱의 유학을 중요시 여겼다.

| | |
|---|---|
| 正路斜岐辨易差 | 『正道와』 斜逕은 분별하기 어렵나니 |
| 紛紛記誦與詞華 | 記誦詞만 분분히 행해지누나. |
| 要須佩腹程朱訓 | 모름지기 정주의 교훈을 佩腹하여 |
| 小學功夫日切磋 | 소학공부로 날마다 切磋하려무나. |

勸示義城學者 [42]

오직 程朱의 학문만이 옳으며 도학정신과 사림정신의 기본이 된다고 확신하고 사장의 폐단을 버리고 정주의 가르침을 새기고 소학공부에 날마다 열심히 하는 것을 문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다. 이는 사장보다는 소학공부를 통한 道學과 理學에 정진해 나아갈 것을 주장한 것이다.[43] 이는 스승으로 섬긴 김굉필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김안국은 비교적 온건하고 점진적인 성향으로 사장을 排斥하였고 도학중심으

39) 金安國, 慕齋全集 上.
40) 李相源, 慕齋 金安國 詩 考察 ,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p.39.
41) 李相源, 위의 논문, p.40.
42) 金安國, 慕齋全集 上.
43) 李相源, 앞의 논문, p.42.

로 성리학적 통치 질서의 수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형성을 도모하였기에 파직 당하여 유배되었다. 그는 과감한 개혁보다는 爲己之學을 중시하여 소학을 통한 향촌교화에 힘쓴 실천적 성리학자라고 할 수 있다.[44] 사장을 추구하던 훈구파들의 학문과 사상을 꼬집어 비판하며 오직 정주의 학문인 도학정신과 성리학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소학공부에 매진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小學과 四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교육에 특별히 힘썼다.[45] 이는 다음 모재집의 행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 사방으로 교화가 확대되면 사람의 행실이 돈후하게 되니 백성들의 풍속이 자연히 순박해지고 인재도 또한 많아지게 될 것이니 소학책을 발간하고 반포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책을 읽게 하여 일세를 새롭게 하려고 하였다.[46]

이러한 영향은 그대로 미암에게 전수되었다. 따라서 김안국이 평소 미암에 대해 말하기를 "柳某와 함께 경연에 입시하면 아무 걱정이 없다."라고 할 정도였다. 이로써 김안국의 가르침은 그의 삶의 자세와 처신 그리고 학문적 경향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스승에 대한 예를 다하기를 정성껏 다하였다. 또한 스승에 대한 제문을 지어보내기도 하였다. 그에 대한 내용을 보면, "아침에 김안국 상공의 제문을 정서하였다. 서울에 당도하면 그 다음날로 최상중(최형함)을 보내 장단에 가서 대신 제사 지내게 할 작정이다."[47]라고 하였다. 이처럼 스승에 대한 예를 다하고 배운 바를 실행에 반드시 옮기고자 하였다.

44) 李相源, 위의 논문, p.1.
45) 宋宰鏞, 眉巖日記 硏究 , 제이앤씨, 2008, p.178.
46) 化達四境人敦於行 則自然風俗淳美人材亦盛矣 請論中外俾崇是書廣印頒布 使人人皆得誦習 以新一世.(金安國, 慕齋全集 下, 行狀 )
47) 朝正書祭金慕齋相公文 以到京越一日 當遣崔尙重代祭于長湍故也.(柳希春, 眉巖日記草 卷1, 丁卯(1567年) 10月 26日)

유희춘은 김안국에게 소학교육의 중요성을 훈도 받았고 소학 실천을 통한 정주학의 수용의 양상을 나타냈다. 유희춘은 김안국이 죽은 이후에 기묘사람의 억울함과 소학 의 중요성을 설파하였는데 소학 운동의 명맥을 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승관계로서 정주학의 유학적 학통을 계승하였고 실천적 도학의 지침서인 소학 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崔山斗(1483~1536)의 字는 景仰, 號는 新齋이다. 최산두는 18세에 김종직과 김굉필의 학문을 근본으로 삼아 익힌 후 19세 때 상경한 후 도학을 함께 깊이 연구하여 학문적으로 깊게 사귀었던 인물들로 조광조와 韓忠, 金絿, 金淨, 金安國, 金正國, 金湜, 朴世憙 등 인데 이들은 주로 사림파의 인물들이었다. 당시 이들을 일컬어 '洛中君子會'라 칭하였다. 이들은 모두 신진사림파로서 중종조에 도학을 밑바탕으로 개혁정치를 추진해나가고 기묘명현의 중요한 인물들이기도 하다. 최산두는 그들과 학문적 교류가 깊었으며 또한 도학적 지치주의를 목표로 하여 이상적인 정치를 펴고자 하였고 정주의 학문에 근본을 둔 성리학을 이어받았다.

최산두는 출사한 후에 요직을 두루 역임하였으며 기묘사화로 유배된 이후에는 후진들을 가르치는데 매진하며 붕우들과 교유하면서 출사의 꿈을 접어야 했던 슬픔과 한을 달랬다. 또한 김굉필과의 학연으로 인하여 성리학과 소학 을 바탕으로 학문적 체계를 바로 세웠다.

최산두가 20대에는 橘亭 尹衢(1492~1530)와 懶齋 柳成春(1495~1522)과 함께 당대의 湖南三傑[48]이라 일컬어졌는데 최산두가 37세 되던 해에 기묘사화로 인하여 관직이 박탈되어 화순 동복에 유배되었고 이후 14년이란 오랜 기간 동안 유배생활을 하였다. 중종 37년(1537)에 관찰사로 있던 유희춘은 제문을 짓고 致祭하고 슬퍼하며 스승인 최산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48) 與海南橘亭尹衢 懶齋柳成春 齋名一時稱之曰 湖南三傑斗衢春. (李肯翊, 練藜室記述 卷8)

지난 날 약관 시절 선생님께 나아가니, 선생은 옛 친구를 생각하며 나를 아들처럼 여기셨네. 문 옆에 방을 마련해서 나물국 함께 먹고, 가슴속에 간직한 지식을 쏟아 종일토록 이끌어 주셨네. 밥 짓는 노비들이 번거로울까 오래지 않아 돌아와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가르침에 더욱 힘쓰셨네.[49]

이는 유희춘의 나이 20세에 최산두를 찾아 공부한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최산두는 유희춘을 특별히 아끼는 제자로 삼았는데 그 이유는 당대의 호남삼걸 중 한 명인 유성춘의 동생이며 최산두의 학문은 유계린과도 연계되어 16세기 호남 지역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유계린의 장인인 최보는 김굉필과 김종직 문하의 동문이면서 학문의 도를 같이했던 사이였다.

최보가 무오사화를 당하여 함경도 단천에 유배되었고 김굉필은 순천으로 이배되자 유계린은 그에게 학문을 청하였다. 김굉필과 최보는 무오년에 화를 입었고 훗날 갑자사화 때 유배지에서 같이 사사되었다. 최산두가 김종직과 김굉필의 문인인 점에서 김굉필의 같은 문인인 유계린이 유희춘을 최산두에게 보내어 공부하게 한 것과 유성춘이 당대의 호남삼걸로 최산두와 가깝게 지내게 된 것은 학연에 결과이며[50] 유희춘의 집안과 그는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선생은 평소 忠孝로써 자신의 임무를 삼고, 程朱學을 학문의 목적으로 삼았으며, 規矩가 엄정하여 움직임이 다 법도에 맞아 어그러짐이 없었고, 급하고 顚沛된 경우에 처하여서도 오히려 주역을 강구하기를 그치지 않았었다. 또 후진들을 보면 힘써 바른길을 가르쳐 인도하였으니, 이때에 하서 김인후와 미암 유희춘이 선생께 배움이 깊어 天人之妙에 들었으며, 오히려 선생께 나아와 공부하기를 그치지 않았었다. 흙집에서 살며 나

49) 昔在弱冠 負笈尋師 先生念舊 視余猶兒 館置門傍 藜羹共之 傾困倒廩 盡日提携 恐煩炊婢 未久求歸 書疏往復 敎導愈勤.(柳希春, 眉巖集 卷3, 祭蘿菖崔先生文 )
50) 黃龍壽, 新齋 崔山斗 硏究 ,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34.



『 』 「 」
「 」

물국을 들면서도 아무리 사소한 微物이라도 두루 나누어주는 일을 마치 맛있는 고기를 먹는 것처럼 즐거움으로 삼았었다.[51]

新齋集 의 家狀 을 살펴보면 그가 지향하는 학문의 근원이 정주학에 있었고 평소 충효로써 예를 숭상하고 도량이 넓어 사소한 미물에게도 인정을 베풀었음을 알 수 있다.[52] 최산두는 검소한 생활을 하며 후진들을 바른길로 인도하였는데 특히 조선의 훌륭한 성리학자로 불리는 유희춘과 김인후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자신의 학문을 전수하였다.

다음은 아끼는 제자 유희춘과 함께 잔치에 참석해 그날의 감흥을 노래한 작품이다.

| | |
|---|---|
| 白髮文章放醉歌 | 白髮文章이 醉歌를 부름은 |
| 盖由宴席酒盃多 | 宴席의 酒盃가 분주했던 때문이오. |
| 雲樹深情猶未了 | 雲山 樹林의 정겨운 모둠이 아직 끝날 줄 모르는 여기는 |
| 落花啼鳥夕陽阿 | 꽃지고 새우는 석양 언덕이네. |

與柳眉巖同宴 [53]

스승과 제자라는 신분상의 거리를 뛰어넘은 그들의 知友로서의 곡진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시이며 작별에 임하며 아쉬운 마음을 자연에 빗대어 말하고 있다.

| | |
|---|---|
| 有其嘯也有其歌 | 한 사람은 읊조리고 있고 한 사람은 노래하니 |
| 迎送情懷日夕多 | 맞이하고 보내는 정이 날로 두텁네. |

51) 先生平素以忠孝自任 學問以洛閩爲的 規圓矩方 動輒中度 而雖當急遽顚沛 猶能講易不輟 得見後進 疊疊指正路 于時河西金文正 眉巖柳文節 學邃天人之妙 猶且就正不己 土宇藜羹 毫分縷析 能作芻豢之悅若.(崔山斗, 新齋集 , 行狀 )
52) 白淑兒, 新齋 崔山斗 硏究 ,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17.
53) 崔山斗, 新齋集 卷1.

未把東西分去袂　　동서로 떠나는 옷소매 붙잡지 못하고
他年花發樂遊阿　　훗날 꽃피거든 노닐던 언덕에서 즐겨보세.

柳眉巖次韻 54)

「　　」

스승 최산두의 시에 제자 유희춘이 차운한 시이다.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과 스승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으며 작별에 임하면서 훗날을 기약하는 제자의 곡진한 마음이 나타나 있다. 詩作을 통해 최산두가 기묘사화로 화순 동복으로 유배된 이후 호남의 도학을 흥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는데[55] 시작과 학문이 뛰어난 그는 유배지에서 講席을 열어 호남의 뜻있는 많은 후진들이 문하에 찾아오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는 후진들의 교육에 열중했고 이때 찾아온 문인들 가운데 유희춘과 김인후는 조선 성리학을 대표하는 인물인데 최산두는 김굉필의 학문과 사상을 이어받고 조선 유학의 도통을 그들에게 전수하였다.

최산두가 본격적으로 도학과 관계를 맺은 것은 18세 때에 무오사화에 연루되어 순천에 유배되어 내려온 김굉필에게 그의 학문을 근본으로 삼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정몽주로부터 김종직을 거쳐 김굉필로 이어진 도학사상과 소학 의 중요성은 중종반정 이후 사림의 사회에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하던 시기였는데 이때 그의 학통을 이은 조광조, 김안국 등의 신진사림파 인물들을 중심으로 도학정치론이 제기되었다.[56] 당시 동복에서 14년간의 유배기간 동안에 최산두의 학문을 이어받은 인물로 미암 유희춘과 하서 김인후를 꼽을 수 있는데 호남 성리학에 영향을 미치고 조선 성리학의 꽃을 피우는 기반을 마련하였

『　　』

54) 崔山斗, 新齋集 卷1.
55) 기묘사화 이후 호남사림은 被禍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위축되어 사기가 저하되어 중앙 진출의 경향이 둔화되었다. 그 결과 사화에 연루된 사림을 중심으로 그들 상호간 교유와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들은 학문에 전념하게 됨으로 조선중기 호남의 성리학이 꽃을 피우게 되었다.
56) 黃龍壽, 앞의 논문, p.55.

다.[57] 최산두는 김굉필의 학문과 사상을 이어받아 유희춘과 김인후에게 연결해 줌으로써 16세기 후 호남의 사림흥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는 기묘사림의 사상을 이어받은 학자이며 그의 학문관은 근본적으로 정주학적 입장에 놓여 있고 학문의 방법론 또한 그가 신봉하는 주자학의 방법론을 그대로 수용하고 도학에 입각하여 실천을 중시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성리학은 실천을 강조할 때에는 道學이라 불리는데 도학으로서의 성리학은 객관적 지식의 추구와 더불어 그것의 실제 현실에 대한 적용을 특히 강조하여 '修己治人'이라는 목표를 더욱 철저히 실현하고자 하며 도학으로서 성리학은 사림파의 학자들이 주체가 되어 성리학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하는 15세기 중엽부터 대두되었다.[58] 또한 道學은 조선 왕조의 통치이념으로서 조선시대 유교사상의 주류를 이루어왔는데 성리학은 도학에 그 철학적 기초를 제공하는 한 분야로서 동시에 다양한 도학적 가치세계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59] 도학은 요순으로부터 孔孟으로 이어지는 道統觀念에 집착하는 성향이 짙으며 老·佛 등 이단의 배척사상은 원래 성리학 본래의 성향이지만 노불배척에 의한 정통적 儒敎淵源을 고수하려는 道統觀念이 단순히 성리학이라 할 때 보다 도학이라 할 때 더욱 두드러지며 도학을 표방할 때는 단순히 성리학을 표방할 때 보다 실천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성리학적 '知行兼全' 정신을 극대화할 때 도학정신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고, 도학이란 목숨을 걸고 행할 수 있는 진리를 찾아 그것에 헌신적으로 종사함으로써 이 세상에 질서를 확립시키려는 경향의 성리학적 실천유학이며 조선조의 도학이란 바로 이러한 성리학의 義理정신을 익힌 조선조 선비들이 몸소 당시 사회를 위해 헌신적 봉공의 행위를 실천하려 노력하던 자각의 학문인 것이다.[60]

57) 黃龍壽, 위의 논문 p.24.
58) 孫才淑, 金麟厚의 生涯와 學問 ,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15.
59) 琴章泰, 朝鮮前期의 儒學思想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p.61.



「 」
『 』

최산두는 김종직과 김굉필로부터 이어받은 조선 유학의 道統을 유희춘에게 전수하여 도학을 호남에 근접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최산두는 주자학적 사상을 유희춘에게 전수시켜 도학적 학풍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며 호남에 도학의 뿌리를 내리는데 디딤돌이 되었고 유희춘이 호남의 巨儒로 불리게 되었다.[61]

호남사림의 도학적 학맥의 시작을 살펴보면 김굉필이 무오사화 때 평안도 熙川에 유배되었다가 2년 후에 순천으로 이배되어 5년간 거주하면서 호남지역의 최충성, 유계린, 최산두 등의 인재를 길러내면서 김굉필 학맥을 잇게 되는데 이들은 호남사림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김굉필은 호남사림의 학맥을 전파한 인물로 주자학적 사상을 최산두에게 전수시켜 도학적 학풍을 계승하고 발전시켰고 그 결과 호남의 훌륭한 선비로 불리는 유희춘을 배출하여 호남의 학문적 전통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사승관계를 보았을 때 유희춘은 기묘사림의 영향을 받았다. 그의 저작 중 國朝儒先錄 은 선조의 명을 받아 조선 성리학의 밑거름이 된 기묘사화의 被禍者들이 신원되자 이들의 학문과 학덕을 기르기 위하여 조광조, 김굉필, 이언적의 저작을 모으고 여기에 이들의 활동상과 행장을 첨부한 것이다. 조선조 성리학의 맥을 정몽주→길재→김종직→김굉필→조광조로 이어진다는 도통의 관점에서 본다면 유희춘의 스승인 김안국과 최산두는 김굉필의 제자였다는 점에서 정통 유학을 계승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유희춘의 門人은 주로 귀양지인 종성과 향리인 호남지방 인물들인데 미암일기 에서 언급한 제자들은 許篈(1551～1588), 許筬(1548～1612), 李好閔(1553～1634), 崔尙重(1551～1604) 등이다. 유희춘은 이들 제자에 대한 애정을 미암일기 곳곳에 기록하여 기대하는 바를 표출하였다. 특히 허봉은 許曄(1517～1580)의 아들로 유희춘의 행장을 저술했던 것으로 보인다.[62] 허균의 성옹지소록 에

60) 尹絲淳, 韓國儒學論究 , 玄岩社, 1980, p.64.
61) 白淑兒, 앞의 논문, p.23.

내용을 살펴보면 허균의 두 형인 허봉과 허성이 유희춘에게 수학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의 두 형님은 젊은 날에 미암에게서 受學하였다. 공은 학문이 매우 정밀하고 행실이 극히 독실하였으며 배우는 이를 대할 때마다 반드시 誠明之學을 자세히 가르쳐서 게을리하지 않았다.[63]

미암일기 에 기록한 유희춘의 제자에 대한 생각을 보면 다음과 같다. 특히 허봉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엿보인다.

『 』

저물녘에 허봉이 와서 말하기를 평양에서 致堂管見 을 인쇄할 때에 나의 略註를 함께 인쇄하여 학자들이 보기에 편하게 했다고 한다.[64]

유시에 허봉이 와서 나와 만났다. 반갑고 흐뭇함이 넘치니 이른바 '이별한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그대가 어찌 내 속을 알겠는가(別離未爲久 子豈知我情)'라는 경우이다. 허봉과 함께 치국·평천하에 해당되는 격언들을 선택하여 모아서 御覽으로 드리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65]

美叔(許筠)이 中原에 있을 때에 陝西 長安에 王之符를 만났는데, 그가 우리나라 現今의 理學하는 사람을 물어 보아서 大谷 成運과 一齋 李恒과 蘇齋 盧守愼과 希春을 들어 답했다고 한다.[66]

62) 眉巖集 卷20에는 許筠이 지었으나, 내용이 逸失되었다는 行狀 이 제목만 실려 있고, 李好閔이 지은 諡狀 이 기록되어 있다.(한국고전번역원 해제 참조)
63) 余二兄少日受學於眉庵公 學問甚粹 操履極篤 每見學者 必以誠明之學 諄諄誨之不倦.(許筠, 惺所覆瓿藁 23, 惺翁識小錄 )
64) 暮許筠來言 平壤印致堂管見時 幷印余略註 以便學者觀覽云.(柳希春, 眉巖日記草 卷2, 庚午(1570年) 9月 4日)
65) 酉時 許筠美叔來見我 喜慰洋溢 所謂別離未爲久 子豈知我情者也 深欲與美叔 選擇治平格言 以進御覽云.(柳希春, 眉巖日記草 卷2, 庚午(1570年) 7月 20日)
66) 美叔在中原 遇陝西長安王之符 問我國如今理學之人 以成大谷運 李一齋恒 盧蘇齋守愼及希春對

허성과 허봉이 편지로 가례의 의심난 곳을 묻기에 나는 물음에 따라 대답했다.[67]

집에 돌아오니 許筬이 이미 와 있었다. 오늘 생원 진사의 榜이 나왔는데, 許筠이 시제에서 上之下로 장원이 되고 허성은 다섯 번째가 되었으며 沈喜壽도 합격을 했다. 허응세·양희윤은 모두 떨어져 안타깝다. 봉은 18세 어린 나이로 200인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니 이렇게 기쁠 데가 없다.[68]

이처럼 유희춘은 자신의 제자들이 과거에 입격하거나 급제한 것에 대한 관심과 기쁨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다. 또한 사제간의 돈독한 정을 나누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호민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임진왜란 때 이조좌랑으로 왕을 호종하며 의주까지 수행하였고 명나라에 들어가 명나라의 무장인 李如松에게 지원을 청해 평양전투를 승리로 이끈 인물인데 훗날 대제학에 오른 이호민은 임금께 유희춘의 시호를 내려줄 것을 건의하며 그가 살았을 때 이룬 업적들을 적어 諡狀 을 작성하였다.[69] 또한 최상중도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權慄의 從事官이 되었고 지평, 장령, 교리 등을 역임하고 사간을 마지막으로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온 인물인데 유희춘이 길러낸 문인들은 절의가 뛰어나며 우국충정의 마음이 곡진하였다.

云.(柳希春, 眉巖日記草 卷5, 甲戌(1574年) 12月 9日)

67) 許筬許筠以書問家禮疑處 余隨問答之.(柳希春, 眉巖日記草 卷1, 戊辰(1568年) 5月 4日)

68) 歸舍 見許筬已來 今日生員進士榜出 許筠以疑上之下爲壯元 許筬爲第五 沈喜壽亦中 許應世梁希尹俱落可憐 筠也以十八稚年 至爲二百之魁欣幸無比.(柳希春, 眉巖日記草 卷1, 戊辰(1568年) 5月 27日)

69) 고영진, 호남사림의 학맥과 사상 , 혜안, 2007, p.205.

## 2. 호남士林과의 교분

박지원은 유교문화의 전통에서 선비가 발현하는 사회적 양상을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천하의 공변된 말을 士論이라 하고 당대의 으뜸가는 부류를 士類라 하며 四海의 의로운 소리를 고취시키는 것을 士氣라 한다. 또한 군자가 죄없이 죽는 것을 士禍라 하고 학문을 강론하고 도를 논하는 것을 士林이라고 제시하였다.[70] 조선 초기의 도학자들의 사이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조선왕조의 건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도학이념을 통치원리로 정립하는 데 기여하였던 인물로서 정도전, 권근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 이들을 勳功派[71]라 하며 다른 하나는 고려왕조에 절의를 지킨 정몽주, 길재 등 이른바 節義派라 할 수 있다. 이들을 이어 의리의 정당성을 중시하고 도학이념의 일상적 실천을 강조하는 인물들로서 이색, 김숙자, 김종직, 김굉필, 정여창 등이 여기에 속하며 이들을 사림파라 일컫는다. 훈공파를 이어간 인물들은 정치권력에 깊이 관여하면서 세속화되어 도학이념을 거의 상실하고 권력에 집착하여 勳舊派를 이루게 되었다. 그 반면에 사림파는 초야에 학문적 연마와 실천에 힘쓰면서 의리의 신념을 엄격하게 내세워 도학의 정통성을 확보하게 되었던 것이 사실인데 여기서 사림파가 추구하고 있는 중심 개념의 하나로 등장한 것은 도학이념의 실천주체를 이루는 인격체로서 선비였고 이 선비들의 집단 내지 공동체를 士林이라고 일컫게 되었다.[72]

사림이라 하면 유림을 달리 이르는 말로 통용되는데 유교의 도를 닦고 이를

70) 故天下之公言曰士論 當世之第一流曰士流 皷四海之義聲曰士氣 君子無罪而死曰士禍 講學論道曰士林.(朴趾源, 燕巖集 , 原士 )

71) 조선 건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도학이념을 통치원리로 정립하는데 기여한 바가 큰 인물로 정도전, 권근 등이 있는데 이들을 통칭 '勳功派'라 하였다.(금장태, 한국유학의 탐구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p.78 참조)

72) 금장태, 위의 책, p.78.

연구하며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현실의 참여보다는 도학의 연구와 그 실천을 삶의 기본이념으로 삼고 주로 산림에 은거했던 사류들이다.[73]

조선시대에 와서 자주 일어난 정치적 변화로 인하여 사림들의 수난은 계속되었는데 세조의 왕권찬탈과 연이어 일어난 사화는 도학을 표방하던 선비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주었다. 목숨을 구한 선비들은 유배되거나 은거하면서 학문에 전념하였는데 그러면서 인성과 의리를 지키는 것을 명분으로 삼는 이른바 성리학의 주장에도 앞장섰다. 기묘사화를 겪었던 신진사림파의 삶이 대표적인 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림이라 하면 흔히 儒道를 닦는 선비, 다시 말해 유림이라 불리는데 사화기에 새롭게 대두되었던 사류들의 지칭으로 간주되었다. 유교연원의 정통은 조선조에서 정몽주→길재→김종직→김굉필→조광조의 계승을 흔히 대표적인 정맥으로 보고 있다. 정몽주에서 조광조까지 그들의 문하에서 호남출신의 사림은 60여명에 달하였다.[74] 이들은 모두 성리학에 뜻을 품고 스승의 문하에서 경학을 연구하였던 도학적 지식인층이었다.

사림들은 요·순·탕·무의 어진 임금이 다스리는 세대를 만들고자 노력하였고 사림들은 대부분 김종직과 김굉필의 학통을 이어받은 성리학자로서 경학을 연구하며 도학적 이상주의에 몰두했던 신진사림파였다. 그들은 三司에 배치되어 임금의 측근에서 정사를 도우며 도학적 지치주의를 목표로 삼아서 개혁적인

73) 박준규, 호남시단의 연구 ,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7, p.75.

74) 박준규의 위의 책에 의하면, 金宗直의 문인으로는 나주의 崔溥, 柳軒, 羅允明, 광주의 朴禎, 崔亨漢, 崔雲漢, 表沿沫, 능주의 鄭汝諧, 진안의 宋寶山, 金機, 고창의 曺秀文, 전주의 李繼孟, 李瓊同, 林士壽, 柳仁洪, 창평의 曺浩, 부안의 曺偉, 朴論問, 함평의 李慴이고 金宏弼의 문하에는 광양의 崔山斗, 張自鋼, 孟權, 광주의 李勣, 尹信, 영암의 崔忠成, 임실의 李洙, 익산의 李若水, 해남의 柳桂麟, 남원의 吳梁孫, 李延慶, 洪紹興, 고흥의 宋順孫, 남평의 徐滌, 창평의 朴以寬, 능주의 李嶠, 具斗南, 전주의 李昌壽이며 趙光祖의 문인으로는 광주의 奇遵과 文濬, 남평의 李杜, 담양의 梁山甫, 朴以洪 남원의 丁煥, 丁熿, 洪順福, 李延慶, 李有慶, 나주의 朴紹와 李蟹, 광산의 沈澧와 鄭球, 광양의 崔山斗, 해남의 尹衢, 순천의 張應斗, 부안의 崔弼成, 崔繼成, 장흥의 金光遠, 장성의 白仁傑과 李長榮, 곡성의 南趎, 화순의 金允忠, 刑世英 등이 있다.

정치를 추진하고 경연에서는 주로 『근사록』, 『성리대전』을 강론하여 경학을 중시하였다. 혼란스런 사화로 인해 기세를 펴지 못했던 『사림파의 문풍과 사기를 크게 높이며 성리학적 학풍이 주류를 형성하였다. 조선전기 김종직과 김굉필은 도학으로 호남지역에 커다란 영향을 주어 훌륭한 인재들을 배출하고 중종반정 직후에는 호남사림의 집중적인 중앙 진출을 이끌었다.

조선전기 중앙에 진출하기 시작한 호남지방의 사림파 인사들 대부분은 출신 성분상 공통점을 갖고 있었는데 그들의 선조들이 신왕조 개창 이후 정치적 파동기에 절의를 고집했거나 건국기의 政爭에 연루된 사대부들이었다는 점이다. 이들 가문은 중앙으로부터 먼 호남지역에 거의 형성되었는데 전라도를 落南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중앙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政禍가 쉽게 오지 못하고 기후가 좋고 물산이 풍부하여 은둔하기에 적합하였기 때문이다. 그 중 절의파 인물들의 호남지방 은거는 이후 연산군 때의 사화기에도 이어졌고, 사림파 인물의 영수였던 김굉필이 순천으로 유배되고 김안국이 전라관찰사로 부임한 사실도 호남지역의 사림 분위기를 일신시키는 역할을 하였다.[75] 사림들로 추앙받던 조광조는 중종 때의 기묘사화로 화순 능주에 유배되어 賜死되었지만 그의 유배생활로 인하여 호남 사림들에게는 학문적인 면과 사상적인 면의 많은 발전과 공헌을 가져다주었다. 중종·명종 때에 이르러 호남 사림들이 집중적으로 중앙 진출 양상이 일어나는데 조선조 네 차례의 사화가 배경이 되어서 많은 사림들이 중앙 정계의 박해를 떠나 호남지역으로 은둔하면서부터 호남사림이 형성되었다. 16세기의 명사들은 주로 호남 출신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기에 이 시기를 역사상으로 호남인물이 가장 많이 배출된 시기였다. 여기서는 유희춘이 교유를 맺었던 인물 중에서 金麟厚와 梁應鼎, 그리고 羅世纘과의 교분을 중심

75) 이해준, 『己卯士禍와 16세기 전반의 湖南學派』, 『傳統과 現實』 2, 고봉학술원, 1992, pp.144~145.

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金麟厚(1510～1560)의 字는 厚之, 號는 河西이다. 그는 유학과 문장과 절의에 뛰어난 인물로 16세기 호남 성리학의 형성에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文廟에 배향된 東國 18賢 중의 한 사람이며 호남문단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인물이다. 명종실록 을 살펴보면 그의 인물됨을 알 수 있다.

> 김인후의 사람됨은 뜻이 넓고 두루 이르렀으며 맑고 겸허하여 아름다운 군자로다. 사람됨이 학문, 행실, 문장을 지니고 있어 한 때에 淸士의 名望을 얻었다. 을사년 이후 벼슬살이에 뜻을 두지 않고 身病을 칭탁하며 나오지 않았다.[76]

김인후는 모재 김안국과 신재 최산두의 문하에서 동문수학할 때 교유했던 친구이다. 우정이 돈독했던 그들은 김인후가 시마시에 합격하고 성균관에서 있을 적에 전염병으로 위독하여 주위 사람들이 돌보지 못하였는데 성균관 관원으로 있었던 유희춘이 그를 자신의 집에서 정성으로 간호하여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는데 두 사람 사이가 더욱 절실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훗날 유희춘이 명종 2년(1547) 함경도 종성으로 귀양 갈 때 남겨진 식솔을 걱정하자 김인후는 유희춘의 아들 柳景濂을 자기 문하에서 학문을 닦도록 하고 그를 사위로 삼았으며[77] 그들의 이러한 돈독한 우정은 당시 사람들에게 널리 膾炙되었다.[78] 김인후는 또한 梁山甫의 아들 梁子徵을 사위로 삼고 李恒의 딸을 며느리로 삼았고 奇大升의 딸을 孫婦로 삼았다. 유희춘과 이항, 양산보, 기대승 등 당시의 호남에 사림파의 명사들이 척분으로 얽힌 사돈지간이기도 하였다.

76) 麟厚爲人 曠達淸虛 休休然君子 人也有學行文章 負一時淸望 自乙巳以後 絶意仕宦 托病不起. ( 명종실록 중종 8年(1513) 8月 19日)

77) 柳希春竄北 就別曰 君遠謫 妻子無所依君之弱子 吾當取而爲婿 無念焉 柳自景濂不才 且年歲與其女不稱而竟取之.( 大東野乘 , 東閣雜記 下)

78) 金河西未第時 在泮宮病癘將革 人不敢顧見 柳眉庵希春爲館官 惜其人 舁置其寓 晝夜救視 卒得更起 河西感之 及眉庵竄鍾城 有一子騃甚 河西將贅之 一家共以爲不可 不聽而卒諧其姻 人兩多之.(許筠, 惺所覆瓿藁 23, 惺翁識小錄 )

명종 즉위년(1545)에 김인후가 옥과현감으로 있을 때 유희춘은 서울에서 제주도로 귀양가는 힘든 상황 속에서 옥과를 지나가던 길에 그를 위하여 주자의 孝經刊誤 라는 책을 보여주었는데 김인후가 몸소 베껴 놓았었던 것을 관직에서『물러난 뒤』에 그 책의 끝에 '孝子는 百行之原이요 爲人之本'이라 跋文을 붙여 孝經刊誤跋 이라 했다.[79] 후에 제자들에게 강론하였고 서로간의 학문의 깊이를 쌓았다고 할 수 있다.

유희춘과 김인후는 김안국 문하에서 함께 동문수학한 사이로 程朱學 이외의 학문은 이단이라 배척하고 정주학만이 유학자가 따라야할 바른 학문이라 제시하였다. 유희춘이 보낸 편지의 내용 가운데 "세상의 학문이 너무 많아 추향이 한결같지 않다."[80]라고 하며 正道에서 벗어난 이단을 경계하며 이를 통해 흩어진 放心을 되찾게 되기를 바라는 충고의 말과 유학자의 심정을 적었다.[81] 유희춘은 이단에 대한 태도가 엄격하였으며 存心과 窮理에 동일한 가치를 부여했던 주자와는 달리 존심에 치우쳐 심학적 경향을 보였던 陸九淵과 王陽明에 대해서 비판하고 도교와 불교도 비판하는 자세를 취하였다.[82]

| | |
|---|---|
| 慕君馨德藹芝蘭 | 그대의 꽃다운 덕이 지란보다 더 성하니 |
| 百一相逢朋又間 | 친구 사이 백에 하나이네. |
| 朝夕追隨非不顧 | 아침 저녁으로 추종하길 원치 않음은 아니지만 |
| 自然拘累尙盤桓 | 스스로 세속에 묶여 오히려 서성거리네. |

仁仲以詩招余和之 [83]

| | |
|---|---|
| 病裏悠悠日月侵 | 병든 속에 세월은 유유히 흘러가니 |

79) 孫才淑, 金麟厚의 生涯와 學問 ,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p.12~13.
80) 世學苦多端 所趍宜不一.(金麟厚, 河西全集 上, 奉和柳眉巖鍾山謫所 )
81) 安 봄, 河西 金麟厚의 文學思想 硏究 ,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p.221.
82) 고영진, 호남사림의 학맥과 사상 , 혜안, 2007, p.209.
83) 金麟厚, 河西全集 中.

親朋一字抵千金　　친한 친구 한 글자는 천금에 해당하네.
夢君連夜見君意　　밤마다 임 꿈꾸어 임의 뜻을 알았는데
奈又迢迢南海尋　　어찌 또 머나먼 남해 끝으로 가는 것인가.

寄仁仲 84)

「　　」

위의 두수의 시는 김인후가 지은 것으로 절친했던 친구 유희춘에게 보낸 것인데 그리움의 간절한 교유 모습이 형상화되었다. 명종 2년(1547) 양재역벽서사건에 연루되어 제주, 종성, 은진 등의 귀양살이를 하는 동안 서로 시를 주고받았는데 그 시가 15수에 이르고[85] 김인후와 주고받은 시는 30여 수에 이른다. 유희춘의 답시에는 "그대 생각이 나는 이 밤에 매화가 피어 있어 홀연히 창 앞에 그대가 와있는 줄 알았다."[86]라는 구절이 있는데 둘 사이의 진실된 우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높고 맑은 재질의 지란은 유희춘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며 밤마다 꿈속에서 친구의 뜻을 알아본다는 말은 절실하고 돈독한 우정을 나타낸 것으로 友道를 得心하려는 태도에 해당되고 이러한 우정은 서로의 인간적 진실 위에서 성립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87] 이들 사이의 시적교감은 어릴 적부터 소중한 인연으로 시작하여 중요한 교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머나먼 곳에 내던져진 지 이제 이미 십년, 옛 친구의 안부를 묻소. 바다처럼 멀리 떨어져 벗님의 생각이 부질없이 간절하여 꿈에 뵈었소. 이곳의 궁색한 형편은 글로써 다 하기가 어렵소. 연이어 슬픔과 괴로운 일을 당하여 氣體가 건강하지 못하시다는 말을 늦게야 듣고 우려와 탄식을 금할 수 없소. 그러나 조용히 조리하면 그러는 동안에 마침내 건강이 회복될 것이오. 나는 바람에 날리는 모래와 혹한의 땅에서 비록 남은 목숨을

84) 金麟厚, 河西全集 中.
85) 和柳眉巖韻 (卷4, 1首), 奉和柳眉巖鍾山適所 (卷5, 10首), 奉寄柳眉巖鍾山適所 (卷5, 4首) 등이 있다.
86) 相思一夜梅花發 忽到窓前疑是君.(柳希春, 眉巖集 卷2, 和金河西麟厚韻 )
87) 趙麒永, 河西 金麟厚의 詩文學 硏究 , 아세아문화사, 1994, pp.182～183.



『　　』
「　　」　「　　」　「　　」
『　　』　「　　」
『　　』

이어가고 있지만, 모친의 연세가 일흔 여섯으로 서산에 지는 엷은 햇살처럼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아 항상 끝없는 근심 속에 지낸다오. 근래에는 손아래동서와 兄子가 서로 연달아 죽었다는 소식을 만리나 떨어진 곳에서 뒤늦게 들으니, 간장이 꺾이고 찢어지는 듯하오. 번뇌로 날이 새고 시름으로 적막한 중에 그대의 구슬 같은 詩文을 얻어 감상하며 근심을 잊으려 하니, 장편 십여 수를 이 사람들 편에 적어 보내주시구려. 옛적 蘇東坡가 米元章에게 부탁하여 이르기를, "領海에서 8년을 지내며 그대 원장의 속세를 떠나 초탈한 기운을 생각하나니, 청아하고 웅장하며 속세를 떠난 문장과 뛰어나 입신의 경지에 든 필적을 어느 때나 보아서 瘴毒을 씻을까?"라고 했으니, 바로 오늘 나의 뜻인 것이오. 회포가 수 없으나 모두 풀어 밝히지 못하오.[88]

유희춘은 외진 곳 종성에서의 고된 유배생활에 대한 실상과 연세가 많아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어머니에 대한 걱정, 갑작스런 가족의 죽음에 대한 슬픔 등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어릴 적 동문수학한 知音인 김인후에 대한 믿음을 표출한 것으로 마음을 위로받고 힘든 현실을 잊고자 시문을 청하는 서찰을 작성한 것이다.

| | |
|---|---|
| 有美眉巖子 | 여보소 아름다운 미암 벗님네 |
| 胡然使我思 | 나를 어찌 이다지도 초조케 하오. |
| 何當共一榻 | 어느 때나 한 자리 함께 앉아서 |
| 開卷析毫釐 | 책을 펴고 毫釐를 분석하리오. |

奉和柳眉巖鍾山謫所 [89]

88) 一投天涯 今已十載 故舊音問 如隔洋海 停雲之思 徒苦夢見 此中襞積 一筆難盡 晩聞連遭哀疚 氣體未健 不勝慮歎 然旣靜以調攝 終當平復 僕風沙沍寒之地 縱延殘喘 母年七十有六 日薄西山 常懷無涯之懼 近來娣及兄子相繼零落 萬里晩聞 肝腸摧裂 煩白愁寂之中 欲得君咳唾之珠 玩以忘憂 長篇十餘首 書送是輩 昔東坡寄米元章云 領海八年 念吾元章邁往凌雲之氣 清雄絶俗之文 超邁入神之筆 何時見之 以洗瘴毒 卽僕今日之意也 許多懷抱 都不縷縷.(柳希春, 眉巖集 卷3, 與金厚之麟厚書 )

89) 金麟厚, 河西全集 上.

鍾山天下僻　　종산은 천하에 외진 곳
沙礫日交相　　모래와 자갈이 날마다 서로 교차하네.
十載南音客　　南音 그리워하는 십년 나그네
空勞夢故鄕　　부질없이 고향 꿈만 고달프네.

和金河西麟厚韻 90)

위의 「奉和柳眉巖鍾山謫所」는 김인후가 지은 시이고 다음의 「和金河西麟厚韻」은 유희춘이 화답한 시이다. 그들이 주고받았던 시들은 그들 자신의 심경을 토로해 놓은 것들이 대부분인데 이것은 그들 서로가 자신의 얘기를 가장 솔직하게 나타냈으며 종성으로 유배 간 친구에 대한 걱정과 위로의 마음을 담은 것이다. 당시 정치적인 상황은 어지러운 시기로 여러 차례의 사화가 연이어 일어나면서 온갖 당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많은 훌륭한 선비들은 은거하게 되었는데 어려서부터 절친하게 지냈던 사이였으므로 떨어져 있으면서도 언제나 서로를 그리워하며 지은 시들이 많았다. 시로써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고 불우한 처지를 詩作에 맡김으로써 예로부터 선비들이 중요시했던 以文會友하며 시를 통하여 서로의 우정을 더욱 돈독히 나누었고 그들이 처한 환경은 달랐지만 항상 시를 통해 우정을 돈독히 다져나갔다.

梁應鼎(1519~1579)의 字는 公燮, 號는 松川이다. 그는 조광조의 제자인 學圃 梁彭孫의 셋째 아들로 조선조의 훌륭한 선비이며 뛰어난 문장가였다. 시와 문에 능했고 효행으로 정문이 세워지기도 하였다. 양응정은 그의 부친인 學圃 梁彭孫으로부터 어릴 적부터 수학했는데 그의 모범적인 행동과 훌륭한 학문과 뛰어난 詩作은 부친으로부터 직접 수학하여 이어받은 것이다. 명종 7년(1552) 식년문과에 岐峯 白光弘과 함께 급제한 후에는 三司의 요직을 두루 역임하였으나 선조 7년(1574) 金佑成이 諫院을 사주하여 양응정을 파직하게 했다. 그 후 조정

90) 柳希春, 眉巖集 卷2.

에서 禮曹叅議를 제수하고 이어 中樞府僉知事에 임명하였으나 불응하였다. 유희춘과의 교유의 인연은 양응정이 잘못 論劾 받은 것에 대하여 유희춘이 伸寃을 하고 경학에 뛰어난 선비가 오랫동안 閑地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아룀으로 양응정은 義州牧使로 임명되었다.[91]

> 저녁에 義州牧使 양응정이 南鄕에서 오다가 葛院에 이르러 내가 이 縣(振威)에 들었단 말을 듣고 어두운 밤에도 말을 몰아왔다. 서로 보고 몹시 반가워했다. 公燮은 비록 韓安國의 병이 있기는 하나 마음이 공평하고 선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아들 산수을 데리고 왔는데 나이가 16세요. 또한 단아하여 사랑스럽다. 공섭이 일찍이 내가 자기를 구해주었다는 말을 듣고 깊이 감격하여 골수에 사무쳤다. 나에게 사례하기를 "내 처자들도 고마워합니다." 라고 했다.[92]

위의 일기 내용을 살펴보면 유희춘이 선조께 진언함으로 양응정이 의주목사에 임명되는데 이 일에 대하여 고마워하는 심경을 엿볼 수 있다. 말년에는 벼슬의 뜻을 접고 나주의 博山에서 歸田賦 를 짓고 臨流亭과 朝陽臺를 건립하고 책을 가득 쌓아두고 시를 읊고 술을 마시기도 하고 강론하며 후학을 가르치는데 매진하였다. 양응정으로부터 배출된 제자들은 당대의 훌륭한 명사로 불리었던 백광훈, 최경창, 정철 등이다. 「 」

양응정이 나주의 박산에 있을 때 유희춘과 특별한 교유의 정을 나누었는데 당시 유희춘은 經典의 吐釋을 詳定하라는 임금의 명을 받들고 담양으로 내려와 四書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양응정이 예전에 여러 경전의 토석과 구결을 이미 끝냈고 중용과 대학의 소주까지 작업을 해놓았다 것을 알고서 선조 8년(1575)

91) 權純烈, 松川 梁應鼎의 詩文學 硏究 , 월인, 2002, p.34.
92) 義州牧使梁應鼎自南鄕上來 到葛院聞余入此縣 振威卽犯昏夜馳來 相見喜甚 公燮雖有韓安國之病 然心平好善人也 率來男山璹 年十六 亦端雅可愛 公燮曾聞余救已 深感入髓 謝余曰 吾妻子亦皆感喜.(柳希春, 眉巖日記草 卷5, 丙子(1576年) 10月 15日)



「 」

「 」

에 세 차례 서찰을 보내어 작업해 놓은 자료를 보여줄 것을 정중히 요청하였다. 양응정은 다음해에 토석을 보내주었는데 잘 정리되어 있었으므로 학문과 식견이 넓은 양응정과 함께 유희춘은 이 작업을 무사히 마무리 하였다.[93]

삼가 묻습니다. 영공의 기후가 어떠하십니까? 그리워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제가 남으로 왔을 때 즉시 서신을 올려 기거를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해남에 갔다 오느라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듣건대 영공께서는 한가로이 전원에서 마음을 경훈에 두시고 문도들에게 상세하고 빈틈없이 강론과 문답을 하신다지요. 옛 것을 상고하고 동지를 모으는 고마운 뜻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극한 즐거움을 황권 속에서 찾으셨다면, 곡절 많은 명장, 환해에서 떠나, 넓은 가슴속에 답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생 또한 영공을 위해 다시 깊이 한스러워하지 않겠습니다. 희춘은 거년부터 성상의 뜻을 받들어 경연석상에서 사서의 토와 주석을 상정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모기가 산을 진 것일 뿐만 아니라, 하루 내내 분주하여 공부할 겨를도 없습니다. 요즘은 임금을 하직하던 날 들어가 경광을 뵙고 아뢰기를 "이제 신이 돌아갈 때에 휴가를 받아 상께서 명령하신 일을 하려고 하니, 마땅히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할지요."라고 물었더니, 상께서는 휴가를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사서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비록 한가하지만, 벗이 없는 것이 걱정입니다. 만약 영공과 같이 해박한 사람을 얻어 헤아려 정한다면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兩家가 가깝지 않아 형편이 쉽게 모일 수 없어서 부득이 차선책을 생각했습니다. 영공이 정해 놓은 구결과 토석이 반드시 영공의 책상 위에 있을 것입니다. 찾아 보내 주시어 저로 하여금 참고 자료를 갖게 하시면, 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아주 다행이겠습니다. 영공의 이번 일은 서로 격려하는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임금께 충성을 바치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랍니다.[94]

93) 李濮이 찬한 양응정의 行狀을 살펴보면 유희춘이 서신을 보낸 것이 선조 8년(1575)이고, 사서 토석을 보내 준 것은 다음 해인 선조 9년(1576)으로 되어 있다.

94) 謹問 令候何如 仰戀仰戀 生南來卽欲修一狀 以探起居 而往返海鄕 未暇爲之竊聞令公優遊田園留心經訓 授徒答問 講論詳悉 深歎稽古會友之盛意也 夫旣尋至樂於黃券中 別名場宦海之夷險昇沈 不足芥蔕於寬平之胸次 生亦不復爲令公深恨 希春自去歲 敬奉聖旨於經席 繆當四書吐釋詳定~~之任 非但蚊子負山奔走卯酉無暇用工~~頃於階辭之日 入侍耿光啓曰 今臣之歸 願得賜暇 以修上睿命之書 然當以何者爲先 上雖不肯級暇 然猶答以當先修四書 今雖得閑 又患無友 若得如令公之博雅 商確訂定未爲不可 但兩室不邇 勢末易會 不得已而思其次 令公之所定口訣與釋 必在几案 幸

위의 서찰은 선조 8년(1575) 11월 26일에 유희춘이 양응정에게 보낸 것으로 그가 세상을 떠나기 2년 전인 63세 때 담양에서 보낸 것이다. 전원으로 돌아와 경훈을 밝히고 후학을 가르치는 양응정에게 찬사를 보냈다. 양응정은 문인들의 학업을 위해 사서 토석에 관심을 갖고 그 일들을 차근차근 해왔는데 문인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은 양응정의 조부 梁以河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양응정의 집안에서 자식과 제자들의 교육을 위해 이미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경전의 토석을 시작한 것으로 생각된다.[95] 담양에서 미리 준비된 해박한 양응정에게 유희춘은 임금께 명을 받아 경서의 토석 작업에 협조해 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하였다.

> 일찍부터 이미 영공의 소식을 삼가 살펴왔습니다 번화한 康莊에서 수고하시다가 잠시 쓸쓸한 골짜기에서 쉬고 계신다는 말을 듣고 달려가 예의를 드리고 싶었으나 뜻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다정하신 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 몽학들을 위해 論釋해 놓은 것이 실은 온당치 아니하고, 그 일을 마치지도 아니하여 봄이 오는 따뜻한 때를 기다렸다가 의심되는 바를 가지고 고명하신 그대에게 나아가 여쭙고 싶었습니다. 바라건대 후하신 덕으로 혹 가리고 막힌 데를 터 주신다면 심히 다행한 일로 생각합니다.[96]

이에 3일 후인 29일에 양응정은 위의 서찰의 내용처럼 서찰을 받고 당황함과 송구스런 마음을 드러내며 약속한 대로 다음 해에 다시 글을 올려 유희춘이 추진하는 경서의 토석 상정에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이 두 사람의 교유의 정이 돈독하였음을 보여주며 교유를 통하여 서로가 어려운 때에는 부탁하고 의지하

得獀送令生得以參考 有成 不淑幸甚 令公此擧 非徒成切磋琢磨之益 實是獻芹九重之誠 伏惟.(梁應鼎, 松川集 제4편, 附柳眉巖書 )

95) 權純烈, 松川 梁應鼎의 詩文學 硏究 , 월인, 2002, p.37.

96) 曾已仰審令體 久勞康莊 暫憩空谷 馳展下禮 願言莫遂 伏蒙令翰……爲蒙輩論釋實未穩當 亦未克卒業 擬待開春和煦 抱其所疑 就質于高明之下 庶或厚德通 其塞而撥其蔽也 自幸之甚.(梁應鼎, 松川集 제4편, 答柳眉巖 )

는 서로 돕는 모습을 보였으며 서로간의 학문의 깊이를 쌓았고 서로의 학덕을 존경하고 추앙하였다. 그들의 이런 작업으로 인해 유학의 발전에 커다란 공을 쌓았으며 기여한 바가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羅世纘(1498~1551)의 字는 丕承, 號는 松齋로 조선조 중·명종의 문신으로 不義에 굴하지 않고 지조 있는 선비였다. 나세찬은 나주 태생으로 기묘사화에 능주로 귀양 온 조광조를 신원하다가 화를 당한 羅彬의 아들이다. 을사명현의 한 사람으로 그의 인맥 역시 기묘사화와 을사사화의 화를 입은 사림들과의 유대가 매우 깊게 형성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기묘사화와 을사사화 그리고 양재역벽서사건 등이 일어난 혼란스런 사화기에 그는 신진사림파와 교유하면서 화를 입었던 선비들의 구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화를 당하였다.

유희춘은 26살에 과거에 급제하여 출사해서 당대의 지식인층들과 폭넓은 교유를 시작했다. 32세가 되던 중종 39년(1544)에는 조선에서는 과거에 급제한 문신 중에서 덕과 재주가 뛰어난 인물들을 뽑아서 독서당에서 학문에 더욱 정진하도록 했는데 湖堂에 선발되어 경학과 문장을 배우고 여러 문인들과 학문적인 유대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그 다음해에 윤원형 등이 善類들을 파직시키고 명종 2년(1547)에는 그를 정미년 양재역벽서사건으로 억울하게 연루시켜 제주도에 귀양시키고 종성으로 이배되는 등 19년간 귀양살이를 한 것이다. 나세찬은 이에 유희춘을 비롯해서 함께 연루된 白仁傑 등의 원통함을 상소하여 신원하다가 간사한 무리들의 미움을 타서 결국 체직을 당하였다.[97] 그 이후에 명종은 나세찬을 더욱 아꼈는데 유희춘을 비롯한 백인걸 등을 목숨 걸고 구원하려 했던 행동들을 통해 용감하고 지조와 절개가 있는 선비로 생각하였다. 유희춘과 나세찬은 이러한 일들을 계기로 더욱 친밀한 사이가 되었다. 유희춘은 15세의

97) 박준규, 松齋 羅世纘의 交遊人物과 交遊詩 , 송재 나세찬 시문학 연구 , 전라남도, 1996, p.24.



「 」『 』

연상인 나세찬에게 항상 존경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 유희춘은 나세찬이 세상을 떠나자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 | |
|---|---|
| 宇量千間厦 | 사람됨은 천 칸의 집이고 |
| 才猷萬斛舟 | 재주는 만 섬의 배네. |
| 臨危堅似石 | 위험에 처해도 돌처럼 단단하였고 |
| 從諫速如流 | 충고를 받으면 유수처럼 민감하였네. |
| 謂作明堂棟 | 나라의 동량재 되리라 일렀는데 |
| 翻成宿草丘 | 도리어 묵은 풀 언덕이 되었네. |
| 生平松遠志 | 평생의 소나무 같은 원대한 뜻을 |
| 今慟北莣陬 | 이제는 북망산 구석에서 슬퍼하네. |

輓詞 [98]

輓詞는 죽은 자를 애도하는 시로써 생전의 일을 회상하면서 짓는 글로 교유의 정을 느낄 수 있다. 위의 시에서는 宇量은 器宇度量의 준말이고 才猷는 才智猷念을 뜻함으로 나세찬의 인품, 재능, 성격과 공덕을 칭찬하고 기리고 있다. 인품과 기량이 천 칸의 큰 집처럼 활달하고 넓다는 것으로 그의 재주와 슬기, 일의 계획함이 무궁무진하여 무엇이든 한없이 실을 수 있다는 만곡의 배와 같다는 것이다. 이처럼 유희춘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를 지어 평소 존경하고 흠모했던 나세찬의 죽음을 슬퍼하며 인생의 덧없음을 노래한 哀悼詩이며 평소 정분을 아쉬워하였다.[99] 그들은 15살의 나이차를 초월한 忘年之情의 교유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당나라 두보의 시에서 “人生契無老少”라고 한 것은 인생의 사귐에는 노소가 없음을 말하였듯이 유희춘과 나세찬은 忘年之交의 교분으로서 유희춘은 나세찬으로부터 신분상의 위기 극복에 도움을 받은 것을 계기로

98) 羅世纘, 松齋先生文集 卷6.
99) 박준규, 앞의 책, pp.10～11.

더욱 우의를 돈독히 하였던 것이다.

그 외의 호남출신인 朴淳, 尹毅中, 尹復, 柳景深, 宋純, 鄭澈, 金天鎰, 鄭介淸, 鄭汝立 등과도 활발하게 교유하였다.[100]

100) 고영진, 호남사림의 학맥과 사상 , 혜안, 2007, p.205.



『 』

## 3. 부인 송덕봉과의 詩交

애정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문학을 낳게 하는 중요한 소재 중의 하나이다. 인간의 보편적 감정인 남녀간의 사랑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전통 시대 사회에서는 실질적으로 한시 생산의 담당자이기도 한 사대부들의 애정 교감도 부인과 기생을 제외하고는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더구나 한시라는 까다로운 형식을 요구하는 문학 양식은 일부의 식자층에서만 한정하여 제작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101]

李德懋가 도덕과 예절이 무너져 사회 전체가 피폐해져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한 나머지 작은 예절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서 작성한 士小節 에서는 "부녀자들은 대략 서사, 논어, 모시, 소학, 여사서를 읽어서 그 뜻이나 통하고, 족보, 연대 국호, 성현의 이름이나 알면 그만이지 함부로 시를 지어서 왜간에 전파하는 것은 불가하다."[102]라고 하였다. 당시의 여성들의 문학 활동의 한계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송덕봉이 한시를 지어 시로써 유희춘과 수창하는 등 문학적인 교감을 통해 부부로서의 친밀감뿐만 아니라, 시인으로서의 소통을 이루었던 것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유희춘의 부인인 宋德峯(1521～1578)은 그의 부친인 宋駿이 연산군 때 대사헌·좌승지·전라감사·대사헌·예조판서 등을 역임한 李仁亨의 딸과 혼인하여 3남2녀 중 막내로 중종 16년(1521) 담양에서 태어났다. 자는 成仲이고 호는 德峯이고 휘는 鍾介이다.[103]

101) 閔丙秀, 韓國漢文學槪論 , 太學社, 2004, p.284.
102) 婦人當略讀 書史 論語 毛詩 小學 女四書 通其義 識百家姓 先世譜系歷代國號 聖賢名字而已 不可不浪作詩詞 傳播外間. (李德懋, 士小節 )
103) 필자가 2008년 6월 27일 답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암사당 안에 소장된 송덕봉의 신주에 "故貞夫人宋氏諱鍾介字成仲神主"라는 글을 확인함으로써 송덕봉의 諱가 종개라는 것을 알았다.

유희춘의 평생 행적을 기록한 글에 따르면 그녀는 천성이 명민하고 성장하면서 經史와 四書에 능하였고 여류시인으로 詩와 文에도 뛰어났었다. 그녀는 한시를 지어 德峯集 이란 시집을 남겼는데 덕봉집 은 그녀의 나이 51세에 유희춘이 처조카 송진을 시켜 책으로 만든 것이다.[104]

| | |
|---|---|
| 平生三到洛陽城 | 평생 낙양성에 세 번 이르고 |
| 南北佳山舊樣青 | 남북의 아름다운 산들 오래전 모습대로 푸르네. |
| 卄載天涯曾泣血 | 이십년 동안 하늘가에서 피눈물 흘리고 |
| 那知今日錦衣榮 | 오늘의 錦衣와 榮華를 어찌 알았겠는가. |

醉中偶吟 [105]

| | |
|---|---|
| 喜君醉裏辦詩城 | 그대 술에 취해 시로써 도성을 그려내니 반갑고 |
| 崔崒驚看雲外青 | 구름 밖 푸른 모습, 놀라서 바라보네. |
| 京洛風光雖最好 | 서울의 풍경이 비록 좋다지만 |
| 不如歸去饌前榮 | 돌아가 처마 아래서 밥을 먹는 것만 못하다네. |

次韻 [106]

앞의 醉中偶吟 은 송덕봉이 지은 것이고 뒤의 시는 유희춘이 차운한 것이다. 이 시의 題下에는 유희춘이 '舍改作去, 從夫人指也'라고 주를 달았는데 결구의 '去'는 원래 '舍'라고 했던 바 부인의 지적에 따라 '去'로 고쳤으며[107] 미암일기 중에 유희춘이 先戒를 기술하여 시 1구를 지었는데 송덕봉이 유희춘에게 "시를 짓는 법이 직설을 하여 문장을 짓듯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산에 오르고 바다를 건너고 하는 식으로 起를 하여 끝에 가서 벼슬한 이야기를 해야

104) 宋霖所寫夫人詩 深以爲喜 尤以詩傳不朽. (柳希春, 眉巖日記草 卷3, 辛未(1571年) 4月 11日>)
105) 宋德峯, 眉巖日記草 卷5 수록.
106) 柳希春, 眉巖日記草 卷5.
107) 金鐘城, 眉巖 柳希春의 漢詩 硏究 ,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55.

한다고 하였다. 송덕봉의 이러한 조언에 유희춘은 깜짝 놀랐고 그 조언을 받아들여 다시 시를 지었다.[108] 유희춘은 부인에게서 학문과 문학적 자문을 구했고 시를 지을 때 도움을 구하는 것에 전혀 망설임이 없이 시를 주고받을 수 있었다. 시를 지을 때에도 부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며 이를 존중하고 충고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였는데 이들 부부가 詩友로서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였음을 보여준다.

園花爛漫不須觀　　정원의 꽃이 난만해도 볼 것이 없고
絲竹鏗鏘也等閑　　거문고 퉁소 소리 요란해도 부질없네.
好酒妍姿無興味　　좋은 술 고운 자태에도 흥미가 없어
眞腴唯在簡編間　　참 맛이란 簡編의 사이에 있는 것이라네.

至樂吟 [109]

春風佳景古來觀　　봄바람 좋은 풍경 고인들도 보던 것
月下彈琴亦一閑　　달빛아래 거문고 타는 것도 하나의 한가로움이네.
酒又忘憂情浩浩　　술 또한 근심을 잊게 하여 정을 넓혀주는데
君何偏癖簡編間　　그대는 어찌하여 편벽되게 서책에만 골몰하시나요.

次韻 [110]

앞의 시 至樂吟 은 유희춘이 부인에게 보낸 것이고 뒤의 시는 송덕봉이 남편의 시에 차운한 시이다. 유희춘은 봄날 정원의 아름다운 경치, 거문고와 퉁소 소리의 요란함과 좋은 술, 고운 자태 등에는 도통 관심이 없고 오로지 지극한 즐거움은 서책을 보는 것이라고 말한다. 송덕봉은 유희춘에게 答詩를 보내며

108) 希春述先戒 作詩一句云 夫人謂余曰 詩之法 不宜直說若行文 然只當起登山渡海 而說仕宦於其終可也 余卽矍然從之 遂作詩云云.(柳希春, 眉巖日記草 卷5, 丙子(1576年) 11月 11日)
109) 柳希春, 眉巖日記草 卷5.
110) 宋德峯, 眉巖日記草 卷5 수록.

남편을 봄날의 경치, 음악, 술에 관심을 가지고 재미있고 즐겁게 말년을 보내자고 권유하고 있다. 그러면서 서책에만 몰두하는 재미없는 남편을 은근히 나무라고 있는데 때로는 경계의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솔직한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며 남편을 詩友로서 대하였다. 이러한 바는 부부간뿐만 아니라 시인으로서의 소통이 이루어진 것으로 시를 짓는 자세 등을 교감할 수 있었던 것이다.

三十年前舍　30년 전의 집에
如今並轡還　지금 나란히 말고삐를 잡고 돌아왔네.
東堂新洒落　동당이 시원히 새로 지어졌으니
君可舍簪閑　당신은 벼슬을 버리고 한가롭게 지내시구려.

詠東堂贈眉巖 [111]

四十年前夢　40년 전의 꿈이
如今驗始還　지금에서야 징험하여 비로소 돌아왔네.
新堂春色至　새로 지은 당에 봄이 이르니
同樂太平閑　함께 태평한 한가로움을 즐깁시다.

次韻 [112]

앞의 詠東堂贈眉巖 은 송덕봉이 지은 시이고 뒤의 시는 유희춘이 차운한 것이다. 선조 8년(1575) 가을 유희춘은 임금께 사서오경의 경전에 토를 다는 작업을 해서 올리겠다고 하고서 담양으로 내려왔다. 그해 11월 22일 앞의 시처럼 송덕봉이 먼저 30년 전의 고향 집에 돌아와 동당을 지었으니 남편에게 더 이상 벼슬할 생각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와 남은 생을 함께 보내자는 내용이다. 이는 유배생활로 오랜 기간 서로 떨어져 지냈고 복관된 이후에도 관직생활로 여념이

111) 宋德峯, 眉巖日記草 卷5 수록.
112) 柳希春, 眉巖日記草 卷5.

없었던 남편에게 이제는 한가롭게 보낼 것을 권유한 내용의 시이다. 이에 유희춘이 차운하여 말하기를 과거에 꾸었던 꿈이 이제야 징험하여 돌아와서 새 집을 지었으니 태평한 세월을 보내자고 답시하였다.

聖眷方隆何事退　주상의 사랑이 융성하니 어찌 물러나리오마는
休官林下養精神　관직을 쉬고 林下에서 정신을 수양하시오.
黃金盈櫃非吾願　황금이 가득한 궤가 나의 소원 아니요
新室淸溪亦一珍　새 집과 맑은 시내 또한 하나의 보배네.

又贈眉岩 113)

讀經九載德音頻　경전을 읽은 지 9년 동안 德音을 자주 내리시니
啓沃從容久會神　주상을 인도하길 조용히 한 바 마음이 통한 지 오래로다.
恩許歸田尋至樂　전원으로 돌아가 지극한 즐거움을 허락하신다면
新堂萬卷是吾珍　새 집에 만 권의 책은 나의 보배네.

次韻 114)

앞의 又贈眉岩 은 송덕봉이 지은 시이고 뒤의 시는 유희춘이 차운한 시이다. 송덕봉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황금과 같은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라 새 집에서 부부가 함께 남은 생을 즐기며 사는 것이라고 하였다. 벼슬을 쉬고 林下에서 정신을 수양하라고 유희춘에게 권유하는데 경연에 임하는 동안에 임금으로부터 총애를 받았기에 망설임이 있지만 임금께서 전원으로 돌아가서 지극한 즐거움을 허락한다면 새 집에서 보배와 같은 만 권의 책을 쌓아두고 말년을 보내겠다고 약속한다.

行行遂至磨天嶺　가고 또 가서 드디어 마천령에 이르니

113) 宋德峯, 眉巖日記草 卷5 수록.
114) 柳希春, 眉巖日記草 卷5.

東海無涯鏡面平　　동해는 끝이 없고 거울처럼 평평하네.
萬里婦人何事到　　만리의 길을 부인은 무슨 일로 왔는가
三從義重一身輕　　三從의 의리는 무겁고 一身은 가볍다네.

磨天嶺上吟 115)

「　　」

송덕봉은 1588년 2월 남편이 종성 유배기간 중에 시어머니의 상을 당하는데 이 시는 시어머니 삼년상을 마치고 남편이 있는 유배지 종성을 찾아가면서 지은 시이다. 담양에서 종성까지의 멀고 험난한 여정을 혼자서 감당해야했던 복잡한 심리적 상황과 유교적 덕목으로 재무장하여 修身해 내야하는 명분사이의 절실함을 감지하게 하고 실천하려는 송덕봉의 강한 의지가 보이며116) 송덕봉은 三從을 수행하며 유교적 덕목을 다하는 조선시대 사대부가의 전통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관인의 아내들이 갖고 있는 윤리의식을 잘 나타나고 있다.

부부의 정을 내용으로 한 시는 대부분의 규방여인들이 읊은 교화적 성격의 시와는 다르게 주로 남편과의 정이 가득한 애정의 시를 보이고 있는 점이 특히 주목되며 대부분의 규방시가 지니고 있는 남편의 대한 '그리움의 한' 혹은 '그리움' 등을 표현한 것이 주류를 이루는데, 위의 시처럼 송덕봉의 시는 이와는 대조적인 시풍을 지닌 작품들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117) 즉 송덕봉의 시는 남편과 함께 수창한 작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의 일들을 꾸밈없이 담박하게 그리고 있는 작품들이 있다. 또한 부부간의 애틋한 정을 노래하기도 하였다. 시어는 대체로 평이하며 시상전개나 표현도 자연스럽고 남자 못지않은 기상과 높고 맑은 품격의 시들이 많아 주목할 만하다.118) 이들 부부는 시

115) 宋德峯, 眉巖日記草　卷5 수록.
116) 문희순, 시화에 구현된 사대부가 여성 한시의 미적 특질 , 韓國言語文學　62집, 韓國言語文學會, 2007, pp.268～269.
117) 宋宰鏞, 女流文人 宋德峰의 生涯와 文學 , 國文學論集　15, 단국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997, p.233.
118) 宋宰鏞, 위의 논문, p.236.

로써 수창하며 서로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작시의 태도를 논했으며, 삶의 자세 등에 대하여 교감을 나누었다. 이는 서로의 문학적 능력을 인정하며 소통이 이루어진 것으로 시우로서 교분을 나눈 것이라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승관계에서 유희춘은 스승인 김안국에게 소학 교육의 중요성을 훈도 받아 『소학』 실천을 통한 정주학의 수용 양상을 나타냈으며 정주학의 유학적 학통을 계승하였고 실천적 도학의 지침서인 『소학』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스승 최산두에게는 조선 유학의 도통과 주자학적 사상을 전수받아 도학적 학풍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호남에 도학이 뿌리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유희춘의 문인으로는 허성, 허봉, 이호민, 최상중 등이 있는데 제자들에 대한 기대와 사제간의 돈독한 정을 『미암일기』의 기록들로 통해 살펴보았고 훌륭한 인물들로 길러냈음을 확인하였다.

호남사림과의 교분에서는 김인후와는 知音으로 서로의 학문에 대한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고 유희춘의 유배기간 동안 30여수의 시를 통해 以文會友하여 서로의 우정을 돈독히 다져나갔음을 확인하였다. 양응정은 경서의 토석 상정에 도움을 주어 서로간의 학문을 더욱 견고하게 다졌고 조선 유학의 발전에 큰 공을 쌓았음을 확인하였다. 나세찬은 무고하게 연루되어 유배간 유희춘을 상소하여 신원하다 화를 당하는데 지조있는 선비의 모습과 그들의 忘年之交의 모습을 확인하였다.

부인 송덕봉은 당시 여성의 문학 활동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시를 지어서 부부가 서로 수창하며 교감하였는데 유희춘은 시를 지을 때 부인에게 자문을 구하였고 부인의 의견을 반영하고 존중하며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와 시우로서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였고 이들 부부에게는 한시가 소통의 장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진솔하게 시에 담아내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었다.

# Ⅳ. 결론

지금까지 미암 유희춘의 교유관계를 연구하였다. 먼저 유희춘의 가계와 그의 생애를 고찰하였고, 『미암일기』의 저술 배경을 살펴보았다. 유희춘의 교유관계를 사승관계와 호남사림과의 교분 그리고 부인 송덕봉과의 詩交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기적 배경에서는 유희춘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그의 가문과 家率들에 대해 살펴보았고 『미암일기』 저술을 살펴보았다.

1. 가계와 생애를 살펴본 바로는, 유희춘이 전라감사로 임명되면서 증조, 조부, 부친이 추증되었으며 『형 유성춘』 당대의 호남삼걸로 칭송되었던 인물이다. 유희춘은 중중 32년(1537) 25세 되던 해 생원시에 합격하면서 출사하였으나 을사사화로 파직되고 명종 2년(1547) 양재역벽서사건에 연루되어 함경도 종성으로 유배되었다. 그는 19년간의 유배기간 동안에 성리학과 경학 연구에 몰두하여 학문의 깊이를 더욱 견고히 다졌다. 선조가 즉위하면서 성균관 직강에 제수되었고 다시 홍문관 교리가 되었으며 이로부터 세상을 떠나기까지 요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또한 경연에 나아가 능력을 인정받았으며 후진 양성에 매진하였다. 선조 10년(1577) 5월 노환으로 생을 마감하였다.

2. 『미암일기』의 저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미암일기』는 유희춘이 남긴 선조 즉위년(1567) 10월 1일부터 선조 10년(1577) 5월 13일까지의 거의 11년간에 작성된 개인일기이다. 유희춘은 자신의 주변 일들을 세세하게 기록하였으며 개인적인 기록은 물론이고, 학문 및 신변잡사 등 다양한 관심의 폭을 드러내어 『작성하였다. 이는 당시 생활풍습과 학문의 흐름, 그리고 개인적인 취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면모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유희춘의 부친인 유계린과 형 유

성춘이 평소 일기를 작성하였음을 『미암일기』의 내용에서 살펴보았고, 그의 외조부 최보가 『표해록』을 작성하였음을 살펴보았다. 이처럼 유희춘의 가족이 모두 일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교유관계는 사승관계, 호남사림과의 교분, 부인 송덕봉과의 시교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사승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유희춘의 학맥은 김안국과 최산두 등 기묘사림의 계통을 잇고 있었다. 김안국은 중중 14년(1519) 전라도 관찰사로 임명되면서 유희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김안국은 김종직의 문인으로 『소학』을 실천적 기본과목으로서 확립하였고 제자인 유희춘도 『소학』을 학문의 순서 중 첫 번째로 둘 만큼 중요시 여겼으며 소학교육의 중요성을 훈도 받았다. 최산두는 『37세』가 되던 해 기묘사화로 인하여 화순 동복으로 유배되었는데 『14년간 유배생활을 하게 된다. 유배지에서 講席을 열어 호남의 많은 후진들을 양성하였다. 유희춘은 20세에 최산두에게 배움을 청하였는데 최산두는 김굉필의 학문과 사상을 이어받아 조선 유학의 도통을 유희춘에게 전수하였다. 또한 도학을 호남에 접목시키며 호남이 도학에 근접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유희춘의 문인으로는 허성, 허봉, 이호민, 최상중 등이 있는데 제자들에 대한 기대와 사제간의 돈독한 정을 『미암일기』의 기록을 통해 살펴보았고 그들을 절의가 뛰어나고 우국충정의 마음이 곡진한 훌륭한 인물들로 길러냈음을 확인하였다.

2. 호남사림과의 교분을 살펴보았다. 첫째로 하서 김인후와는 신의를 강조한 『知音之情』의 교유를 살펴보았다. 김인후는 김안국과 최산두의 문하에서 함께 동문수학할 때 교유했던 친구였다. 유희춘이 명종 2년(1547) 함경도 종성으로 귀양 갈 때 유희춘의 아들 유경렴을 자기 문하에 들이고 사위로 삼았다. 유배생활을 하는 동안 서로 시를 주고받았는데 15수에 이르고 김인후와 주고받은 시는 30여수에 이른다. 종성의 유배생활 동안 동문수학한 知音의 情을 나누며 마

음을 달래고자하여 시문을 청하는 서찰도 작성하였다. 그들이 서로 주고받았던 시들은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토로해 놓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종성으로 유배간 친구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 위로의 마음을 가득 담아 그려냈다. 시로써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였다. 이는 자신들의 불우한 처지와 상황을 詩作에 기탁함으로 以文會友하며 시로써 서로의 우정을 더욱 돈독한 교유로 발전시켰음을 확인하였다.

둘째로 송천 양응정과의 從遊之情의 교유 모습을 살펴보았다. 나주의 박산에 있을 때 유희춘과의 각별한 정을 나누었다. 그 당시에 유희춘이 경전의 토석을 상정하라는 선조의 명을 받고 담양으로 내려와 사서를 정리하는데 양응정이 여러 경전의 토석과 구결을 끝냈다는 소식을 듣고서 세 차례의 서찰을 보내어 자료를 정중히 청하였다. 식견이 넓고 해박한 양응정과 함께 이 작업을 무사히 마무리 하였으며 서로간의 학문의 깊이를 쌓았고 그들의 합동 작업으로 인하여 유학의 발전에 커다란 공을 세웠다.

셋째로 송재 나세찬과의 忘年之情의 교유 모습을 살펴보았다. 유희춘은 양재역벽서사건으로 연루되어 함경도 종성으로 이배되어 19년간 유배생활을 하는데 나세찬은 이에 유희춘의 원통함을 상소하며 신원하다가 결국 억울하게 체직을 당하였다. 나세찬의 용감하고 지조 있는 행동에 더욱 친밀한 사이가 되었다. 15세의 연상인 나세찬에게 항상 존경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나세찬이 생을 마감하자 죽음을 애도하고 평소 존경하는 나세찬의 죽음에 輓詞를 지었으며 15살의 나이차를 뛰어넘는 망년지교의 교유 관계를 보여주었다.

3. 부인 송덕봉과의 詩交를 살펴보았다. 당시 여성들의 문학 활동은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에서도 시인으로서 창작활동을 하였다. 유희춘은 이런 송덕봉에게 학문적인 자문을 얻는 것과 시를 지을 때 도움을 구하는 것에 어색함이 없었고 知己라는 동반자 의식을 가지고 시를 주고받았다. 시를

지을 때 부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며 이를 존중하며 충고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였다. 따라서 이들 부부는 시우로서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였고 한시가 소통의 장이 되었다. 주로 남편과 함께 수창한 작품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애틋한 정을 그려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진솔하게 시에 담아냈고, 시로써 서로 수창하여 부부교분시의 질을 높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상으로 미암 유희춘의 교유관계를 고찰하였다. 이로써 유희춘의 당대 저명한 학자, 문인, 관료들과의 교유를 파악할 수 있었다. 16세기는 호남 출신의 名士들이 활발히 활동한 시기였기에 유희춘은 해남 태생으로 호남지역의 명사와 깊은 유대가 형성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유희춘은 관직생활을 하는 동안에 신의와 절의로 교유하며 교유를 통해서 서로간의 학문과 식견을 넓혔고, 모범적인 관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시로써 소통을 이루며 마음 따뜻한 남편의 모습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유희춘의 교유관계 고찰을 통하여 유희춘의 위상이 재정립되었기를 기대한다. 본고는 유희춘의 교유관계에 초점을 둔 것으로 미흡한 점은 지속적으로 고찰하여 보완해나갈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자료

金安國, 慕齋全集 , 慕齋先生記念事業會, 1990.

金麟厚, 河西全集 , 筆巖書院, 1993.

柳希春, 眉巖集 , 한국문집총간 34, 민족문화추진위원회, 1988.

柳希春, 眉巖日記草 , 담양문화원, 1990.

崔山斗, 新齋集 , 草溪崔氏大同譜編纂委員會, 1989.

2. 저서

고영진, 호남사림의 학맥과 사상 , 혜안, 2007.

權純烈, 松川 梁應鼎의 詩文學 硏究 , 월인, 2002.

琴章泰, 朝鮮前期의 儒學思想 ,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_____, 한국유학의 탐구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閔丙秀, 韓國漢文學槪論 , 太學社, 2004.

박준규, 호남시단의 연구 ,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7.

宋宰鏞, 眉巖日記 硏究 , 제이엔씨, 2008.

유희춘 저, 이백순 역, 다시 읽는 미암일기 , 담양군, 2004.

尹絲淳, 韓國儒學論究 , 玄岩社, 1980.

이종묵, 한국 한시의 전통과 문예미 , 태학사, 2002.

정창권, 홀로 벼슬하며 그대를 생각하노라 , 사계절, 2003.

3. 논문

고영진, 16세기 湖南士林의 활동과 학문 , 남명학연구 3집,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1993.

_____, 이황학맥의 호남 전파와 유학사적 의의 , 韓國의 哲學 32집, 慶北大學敎 退溪硏究所, 2003.

金美善, 崔溥 漂海錄 의 기행문학적 연구 ,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金鐘城, 眉巖 柳希春의 漢詩 硏究 ,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柳年錫, 梁應鼎의 書札과 言行錄에 대한 硏究 , 古詩歌硏究 6집, 韓國古詩歌文學會, 1999.

문희순, 시화에 구현된 사대부가 여성 한시의 미적 특질, 韓國言語文學 62집, 韓國言語文學會, 2007.

박미해, 16세기 夫權과 婦權의 존재 양식: 眉巖日記 에 나타난 유희춘과 송덕봉의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여성학 18집, 한국여성학회, 2003.

박준규, 光州의 博山과 松川 梁應鼎 , 古詩歌硏究 6집, 韓國古詩歌文學會, 1999.

_____, 松齋 羅世纘의 交遊人物과 交遊詩 , 송재 나세찬 시문학 연구 , 전라남도, 1996.

_____, 조선조 전기 전남의 樓亭詩壇 연구 , 湖南文化硏究 24집,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1996.

白淑兒, 新齋 崔山斗 硏究 ,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孫才淑, 金麟厚의 生涯와 學問 ,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宋宰鏞, 眉巖日記 硏究 ,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_____, 「眉巖日記」에 書誌와 史料的 價値」, 퇴계학연구 12, 단국대학교 퇴계학연구소, 1998.

_____, 「眉巖日記」에 나타난 人間 柳希春」, 퇴계학연구 16, 단국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002.

_____, 「眉巖 柳希春의 生涯와 學問」, 퇴계학연구 10, 단국대학교 퇴계학연구소, 1996.

_____, 「眉巖 柳希春의 詩世界: 漢詩와 時調를 중심으로」, 동양학 30,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0.

_____, 「女流文人 宋德峯의 生涯와 文學」, 國文學論集 15, 단국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997.

安 봄, 「河西 金麟厚의 文學思想 硏究」,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禹應順, 「16세기 畿湖士林派의 형성과 그 문학적 지향」, 韓國漢文學硏究, 31집, 韓國漢文學會, 2003.

李相源, 「慕齋 金安國 詩 考察」,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李成妊, 「16세기 양반관료의 外情: 유희춘의 『眉巖日記』를 중심으로」, 古文書硏究 23, 한국고문서학회, 2003.

이우경, 「조선조 "일기문학"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이해준, 「己卯士禍와 16세기 전반의 湖南學派」, 『傳統과 現實』, 고봉학술원, 1992.

鄭在薰, 「眉巖 柳希春의 生涯와 學問」, 남명학연구 3,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1993.

정창권, 「미암일기」에 나타난 송덕봉의 일상생활과 창작활동」, 『語文會』 78,

韓國語文學會, 2002.

조원래, 16세기초 호남사림의 형성과 사림 정신 , 금호문화 50, 1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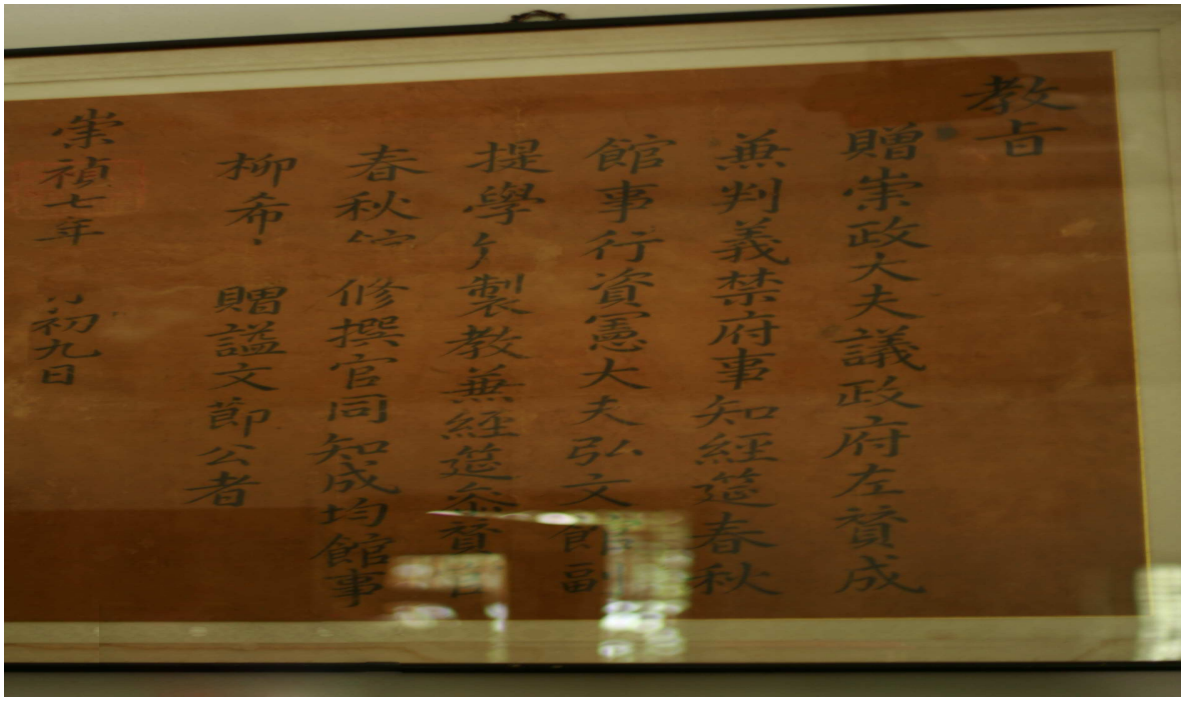
韓睿嫄, 16세기 사화기에 있어서 호남문학의 형성과 전개양상 , 古詩歌研究 14, 韓國古詩歌文學會, 2004.

황수정, 眉巖 柳希春 文學 研究 , 韓國漢詩研究 14, 韓國漢詩學會, 2006.

黃龍壽, 新齋 崔山斗 研究 ,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부록>

『 』


教旨
贈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
兼判義禁府事知經筵春秋
館事行資憲大夫弘文館副
提學戶製教兼經筵參贊
春秋修撰官同知成均館事
柳希
贈諡文節公者
崇禎七年 初九日

유희

溪亭

顯先祖妣 晴貞敬夫人宋氏神主

미암 유물 전시관 건립공사
일반안전수칙
공사안내
0621 223-1199

#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한문교육 학 번 20048150 과 정 석사

| | |
|---|---|
| 성명 | 한글: 정 하 임 한문: 鄭 夏 任 영문: Chung Ha-Im |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253-6 |
| 연락처 | 010 * 3300 * 1777 E-MAIL: chung-h-i@hanmail.net |
| 논문제목 | 한글 : 眉巖 柳希春의 交遊關係 硏究<br>영문 : The study of Miam heechun Yoo's Social-intercourse relationship |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 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2008년 8월 일

저작자: 정 하 임 (서명 또는 인)

##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